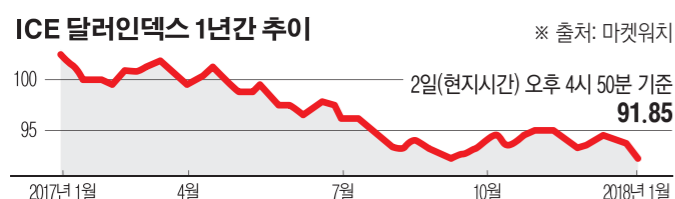


## 달러의 역습

새해 벽두부터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곤두박질치며 외환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인덱스는 장중 한때 91.75까지 떨어지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39% 오른 1.2059달러를 기록했고, 달러·엔 환율은 전일 대비 0.28% 하락한 112.31엔을 나타냈다. 같은 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1.2원으로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개혁과 금리 인상,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ICE 달러인덱스는 10%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달 15일 이후에만 약 2%가 빠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하에 31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미국의 경제 개편이 오히려 달러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개편안이 통과되기 전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의 대폭



### 美 세계개편안 발목... 달러인덱스 장중 91.75까지 하락 올해도 약세 전망... 수출 주력 韓, 원자재값 상승에 부담

인하는 달러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미국 내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은 감세나 고용이나 투자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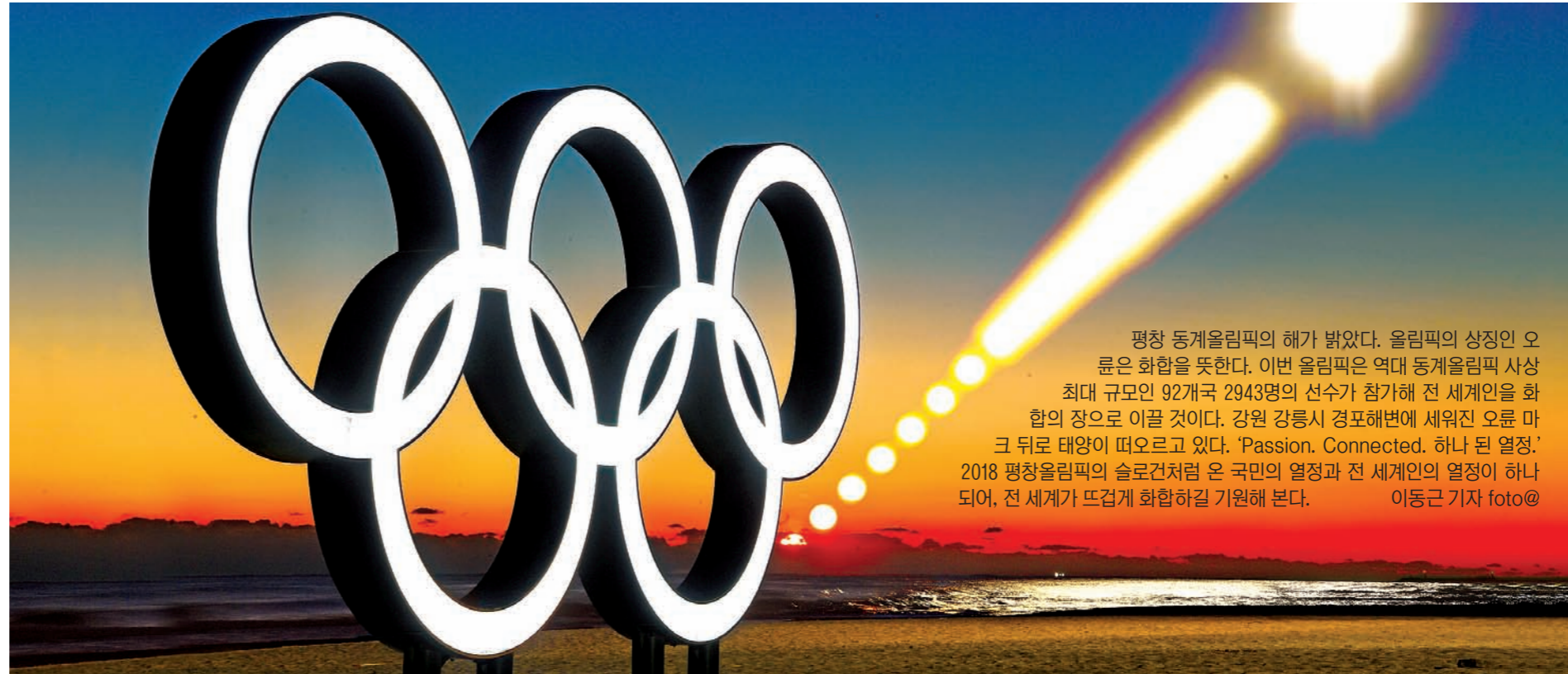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마크 찬들러 글로벌 애널리스트는 "사람들은 감세가 단기적 성장을 촉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달러화 가치도 상승했다. 2014년 ICE 달러인덱스는 13%, 2015년 9%, 2016년에는 3.5% 올랐다.

그러나 달러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상대 통화는 강세가 필연적이라는 의미다. 통화 강세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치명적이다. 당장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역협화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국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1.3% 감소한다.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4%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2.8% 올랐다.

뿐만 아니라 달러화 약세는 원자재 값 강세로도 이어진다. 원유, 구리, 철강 등 원자재는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최근 세계 3대 국제 유종 가격이 모두 배럴당 60달러를 넘어 서며 이미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밝아오는 평창올림픽의 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해가 밝았다.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은 화합을 뜻한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43명의 선수가 참가해 전 세계인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 것이다.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세워진 오륜마크 뒤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Passion. Connected. 하나 된 열정.' 2018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온 국민의 열정과 전 세계인의 열정이 하나 되어, 전 세계가 뜨겁게 화합하길 기원해 본다. 이동근 기자 foto@



## 10년만에 '810' 찍은 코스닥 '1000 高地' 보인다

### 정부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投心 컴백' 국민연금 투자확대 결정엔 상승 기폭제

코스닥이 연초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책 기대감과 수급 변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타고 연내 1000선 돌파 가능성에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린다. ▶관련기사 22면

3일 코스닥은 전날보다 3.85포인트(0.47%) 오른 816.30으로 개장했다. 전날 812.45에 장을 마감하며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닥은 이를 연속 상승, 본격적인 '1월 랠리'를 예고했다.

개인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차익 회피성 물량 등으로 코스닥을 대량으로 팔았던 개인이 컴백한 것.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개인의 매도세 확대 경향이 예년보다 뚜렷했던 만큼, 이들의 1월 순매수 전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새해 투자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다. 테슬라 요건 완화를 통한 상장제도 개선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내용을 방침이다.

특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방안은 지수 상승을 뒷받침할 기폭제다.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국민연금의 코스닥 매수는 곧 양질의 투자 자금 확보를 의미한다. 이재만 하나금

용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총 127조 원으로, 단순히 코스닥 비중을 1%포인트만 상향 조정해도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6조5700억 원. 지난해와 비교할 때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지난해 말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례해 코스닥지수 1000선 돌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임삼국 KB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코스닥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1000포인트 돌파는 충분하다"고 예측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물량폭탄·규제·예산축소... "올 국내 건설受注 11% ↓"

올해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 들어 쏟아진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업황 둔화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최근 발간한 산은조사월보 '2018년 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을 126조1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예상치

142조7000억 원보다 11.6%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주택 신규 분양 급증에 따른 공급 물량 부담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위축, SOC 예산 축소의 영향이 클 것이라 분석했다.

반면 기성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최근의 수주 물량(2015년 134조5000억 원, 2016년 145조8000억 원)의 착공으로 작년 예상치 142조9000억 원보다 17% 증가한

167조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리서치센터는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온 국내 건설 수주는 2017년 하반기에 하락 전환했고 2018년에는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리서치센터는 해외 건설 수주도 호황보다 선방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되는 해외 건설 전체 수주는 329억 달러로 예상했다. 작년 예상치 314억 달러보다 4.8%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의 건설 수주 규모를 작년 152억 달러(예상치)보다 소폭 증가

한 158억 달러로 추산했다. 아시아는 145억 달러에서 153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수주의 부진은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지역의 재정 악화로 발주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희희 기자 jhsseo@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2018년 새해 '행복' 많이 만드세요

행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때 더욱 커지는 것이기에  
올해도 SK는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기고

코리아 리스트럭처

# 國論통합이 중요한 한국 외교·안보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그만큼 도전도 커지고 있다. 주변 강대국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모두가 우리에게 정책적 딜레마를 던져 주고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아래 일방주의와 의도적인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2015년 세계 195개국에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며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방어·역지능력 강화해 북에 대한 美 무력행사 막고**

**안보 최우선 원칙 고수하며 美·中 사이 '줄타기 외교' 배척**

고 한국과는 2011년 체결된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을 수정하는 협상을 시작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협상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독단적이고 예측 불허의 행태는 우리나라에도 정책적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꾀하고 미국을 견제하며 주변국에 대하여 대국(大國) 행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드 배치를 발미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3불(不) 원칙'을 끌어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안보 및 동맹정책과 관련하여 운신의 폭을 좁히고 속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安倍) 내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보통국가'로 환원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중국과 우호 외교 관계 속에 美동맹을 균형요인으로 이용**

**韓·日 간 과거사 집착 극복 안보·경제·인적 교류 나서길**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유엔 등에서 대북 압박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을 대신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경제적 이득과 존재감 확보라는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쥐고 있다. 우리로서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확보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 무장을 통하여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차적 목표를 넘어 이제는 핵 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ICBM(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완성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지(핵우산)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으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미끼로 하는 남한과의 대화 제의는 김정은으로서의 외교적 묘수이며 한국으로서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정은은 이번의 제안으로 한미동맹의 균열 초래도 기대할 수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5·24조치 해제 등 대북 지원 조치도 요구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대화 역설에 화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지속하고 강화하려는 미국을 위신하듯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느냐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엄혹한 환경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상반된 이념과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책적 딜레마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늘날 어떻게 정책 딜레마를 극복할 것인가?

첫째, 우리 정부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미국이 오산(誤算) 때문이긴 종종 때문이긴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그러나 '전쟁 불가' 입장만 강조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 유지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미 간의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고 우리 자신의 방어·역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유사시 대피 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북한에 우리의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선포한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 우선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등거리 정책이 아닌 일관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

리는 미국과의 동맹이 장애요인이 아닌 균형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때 중국이 한국을 경시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한국을 압박하면 효과 있다"는 인상을 주는 한 중국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우호 외교를 지속하되 저자세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넷째,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南北관계, 북핵엔 '최대 압박' 한편엔 '대화·교류' 병행해야**

**정부, 각계각층 의견 귀 열고 실용과 균형 갖춘 외교를**

서 과거사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아니더라도 3자 안보 협력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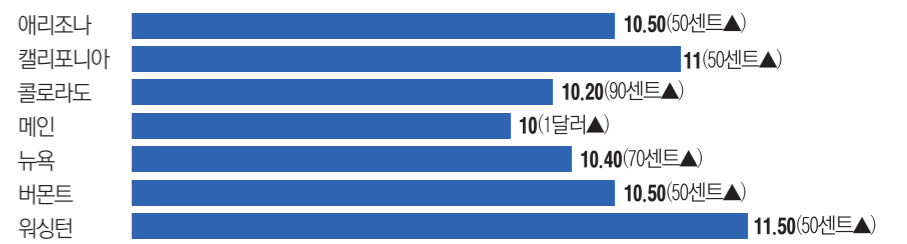
다섯째, 남북한 관계에서는 압박과 협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와 역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확장 역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 무기의 순환 내지 항시 배치 등이 주요방안이 될 수 있다.

당면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되 반대급부로 평양의 올림픽 참가가 한·미 동맹 관계는 물론 대북 제재 문제와 연계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를 열고 국민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념, 감정,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 글로벌 임금인상 러시 경제에 毒될까 藥될까

미국 주별 최저임금 인상 (단위: 달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美 18개주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 식당들, 메뉴 가격 올리고 기업은 자동화 비중 강화 나서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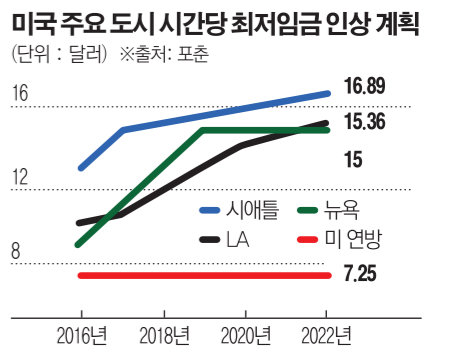
새해가 밝으며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줄이 최저임금을 올렸거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인상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미국 18개 주는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애리조나 주는 1일(현지 시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50센트 인상한 10.50달러(약 1만1100원)로 정했다. 2020년까지 12달러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워싱턴 주도 50센트 인상한 11.50달러로 올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하와이·뉴욕 등 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미국의 임금은 점차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4.1%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임금은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WSJ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모으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월마트와 타깃 등 대형 마트들도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2%대 인상을 유지해온 일본도 올해는 인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일본 재계 대표단체인 이단렌은 회원사에 임금 3%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의 요청이 배경이다.

동남아 국가들도 최저임금을 줄줄이 올린다. 미얀마는 최저임금을 33% 인상할 계획이다. 2015년 9월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인상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유례 노조가 80% 인상을 요



구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앞서서 월 153달러인 최저임금을 170달러 수준까지 높였다.

한국도 임금 인상 흐름에 동참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각국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지만 그 속사정은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 개선과 고용 호조에 따른 인력난으로 인한 인상 성격이 강하지만 동남아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올해 총선을 치른다. 지난해 캄보디아 지방선거에서 대북 임금 인상을 내세운 야당이 약진하면서 올해도 포퓰리즘 경쟁이 예상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는 점이다. 캐나다 내셔널포스트는 온타리오 주 식당들이 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한 식당 주인은 "수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우려도 있다. 온타리오 주 재정감시기관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부 기업들은 자동화 비중을 늘려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 일부의 실직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저임금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근로자의 월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혜 기자 winjh@

“우리에는 한 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짜증만 늘고 자꾸만 짓만 해요.”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신용의 상징-버블프 유인양행 (대표이사: 02-777-1419 / 2000)

**高함량 포커스비타민으로 피로회복부터 빠르게!**

피로회복/체력저하/눈의 피로·건조감/성장기비타민D·칼슘·아연 보급/구내염, 아가개결림

高함량 포커스비타민 **메가트루 포커스정 Focus**

·눈의 건조함을 완화해주는 비타민 A(베타카로틴) ·햇빛을 피기 어려운 실내생활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D  
·벤포티아민 성분으로 8배 더 높은 흡수율의 비타민 B ·칼슘, 아연, 마그네슘과 생약성분인 로얄젤리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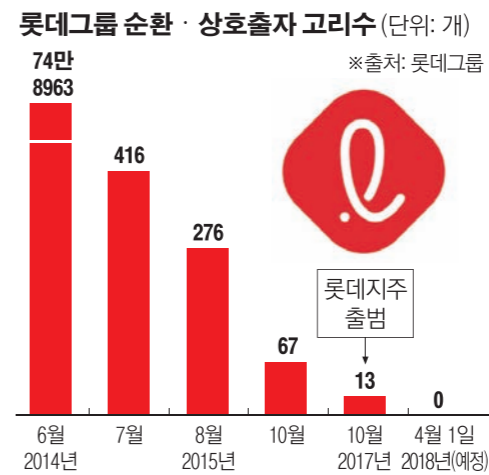
※본사의 약품 판매처는 불만입니다. 부정행위 있을 수 있으니 원부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유통업체 소비자 상담실 (080-324-1188) (수시자 요강부함)



2일 경기도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2018년 시무식에서 김기남 사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롯데, 순환출자 완전 해소... '호텔롯데 上場' 숙제

롯데지주,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합병  
신동빈 '지배구조 개선' 약속 2년 만에  
75만개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 다 끊어  
무산됐던 호텔롯데 상장작업 재논의  
제과·롯데칠성 자회사 요건 충족남아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해 74만 여개의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한다. 이로써 계열사 상장과 자회사 전환 등 '뉴 롯데'를 완성하기 위한 남은 과제들이 주목되고 있다.

롯데지주,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흥기획 및 롯데데이터테크는 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롯데상사 등 6개 비상장사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6개 비상장사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롯데지주는 롯데칠성과 롯데푸드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의 지분 약 1.3%

를 저분해 상호출자 일부를 해소했다. 업계에선 롯데의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됐다는 평가였으나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편이 이어지면서 '뉴 롯데'의 완성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도 따랐다.

하지만 신 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이 이후 롯데는 다시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가 분할합병으로 신 회장의 경영권이 강화되고 '뉴 롯데' 출범 당시 강조했던 투명 경영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그동안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혀왔다. 투자가능을 롯데지주로 통합함으로써 투자력을 강화하고 관리 효율화도 도

모할 수 있게 됐다. 순환출자가 해소된 상태에서 이제 호텔롯데의 상장과 자회사 요건 충족이 남았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등이 아직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1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이 요건에 가장 근접해 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여파에 따른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무산됐던 호텔롯데의 상장 역시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함에 따라 대주주인 일본 롯데측의 경영권 견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지알에스, 대흥기획, 롯데상사, 한국후지필름은 보유 중인 롯데캐피탈과 롯데순해보험 주식을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에 지난해 28일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는 이번 분할합병 결의로 인해 롯데지주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는 2월 27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시 분할합병 기일은 4월 1일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 이후부터 3월 19일 까지가다.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사는 자회사 24개와 손자회사 27개사를 포함한 총 51개가 된다.

고대영 기자 kodae0@

## 10대 그룹 新年辭 살펴보니...

# “가치·고객·혁신” 외쳤다

사업 32회 3년째 가장 많이 언급  
‘가치’ ‘고객’ ‘혁신’ 26회로 뒤이어  
‘성장’ ‘변화’ ‘경쟁’ 제치고 톱 5위에

10대 그룹 신년사 키워드 빈도 (단위: 회)



국내 10대 그룹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가치'와 '고객', '혁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과 지난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성장', '변화', '경쟁' 등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4차 산업혁명 화두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10대 그룹 신년사의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이 32회로 가장 많았으며, 가치와 고객, 혁신이 각각 2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변화(22회) △성장(21회) △경쟁(20회) △시장(18회) △미래(17회) △역량(16회) 등이 톱10에 올랐다.

'사업'은 2016년 54회, 지난해 51회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이 언급됐으나 빈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공동 2위에 오른 가치, 고객, 혁신은 지난 2년간 5위 내에 든 적이 없었으나 미래먹거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재계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회장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

2016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톱 5'에 포함됐던 변화, 성장, 경영, 경쟁 가운데서는 변화만 유일하게 5위 내에 포함됐고, 순위는 일제히 하락했다.

CEO스코어는 "그동안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키

워드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등의 후폭풍으로 해외시장에서 주춤하면서 이런 키워드가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이 초일류, 산업, 조직, 문화 등을 각각 3번씩 언급했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강화, 미래, 시장, 확대 등을 각각 5번 입에 올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준 LG 부회장은 각각 '가치', '혁신'이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가치'를 9번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2일 기준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은 제외했다. 이견희 회장의 와병으로 2015년부터 회장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삼성그룹은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의 신년사로 대체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삼성전자 '영업익 50兆 시대'

9일 잠정실적 발표... 지난해 4분기 영업익 16조 육박 '사상 최대'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도 16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의 50조 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9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도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 67조447억 원, 영업이익 15조9507억 원이다. 이는 전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한 매출 62조500억 원, 영업이익 14조5300억 원 넘어선 수치다.

증권업계는 반도체 부문 특별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 원 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당초 기대보다 낮지만,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은 무난하다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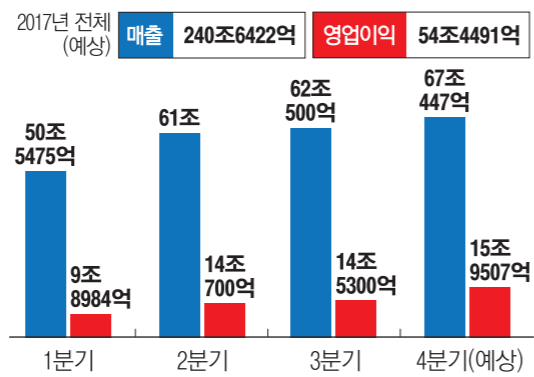
4분기 삼성전자의 부문별 영업이익은 △DS(반도체) 10조9000억 원 △IM(스마트폰) 2조4000억 원 △DP(디스플레이) 1조7000억 원 △CE(소비자가전) 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2017년도 연간 매출액은 240조6422억 원, 영업이익은 54조4491억 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역대 최대였던 2013년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선 상태다. 삼성전자가 연간 50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반도체 슈퍼 호황이 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1분기 6조3100억 원 △2분기 8조

삼성전자 2017년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단위: 원)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FNG이드



300억 원 △3분기 9조9600억 원 △4분기(전망) 10조9000억 원으로 반도체에서만 총 35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6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도 8조 원대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M(모바일)과 CE(소비자가전)부문은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IM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3조29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9% 감소를 기록했다. 4분기 역시 2조40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영업이익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E도 3분기 4400억 원대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도 이와 비슷한 40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 서강다움

소수에게,  
제대로 공부하는 학교,  
남다른 실력의 동문들,  
서강학파의 전통과  
가톨릭정신이 숨쉬는 곳,  
제한 없는 다전공,  
스스로 만드는 학생설계전공 등  
혁신적인 교육제도가 자연스러운 학교-

사람들이 '서강은 다르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서강다움'이라고 답합니다.

그 '앞선' 다름으로 사람과 사회를 위해  
소명을 다해 온 서강대학교가  
'서강다움'을 이으며 단 하나뿐인 인재로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지역권

2018학년도 서강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8. 1. 6(토) 10:00 ~ 1. 9(화) 18:00 \*상세 내용은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ogang.ac.kr) 참조

# 임기 2년 남은 정의현 한전KPS 사장까지 ‘줄사표’ 에너지 공기업 수장 ‘한수원’만 남아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 했지만  
잇단 하차...“교체 압박 있었다”  
한전·발전자회사 4곳 모두 공식  
산업부 “조만간 후임 윤곽”

정의현 한전KPS 사장이 임기를 2년가량 남겨 두고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물갈이가 이뤄지게 됐다.

3일 한전KPS 등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 KPS는 발전소 설비 정비, 개보수 공사 등을 하는 공기업이다. 정 사장은 한전KPS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 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0년 1월까지였다. 정 사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5년 한전KPS에 입사해 기획처장, 재무처장, 감사실장,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한 내부 출신이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전 발전자

회사 사장들에 이어 지난해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까지 퇴임하는 등 발전 공기업 수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물러난 점이 정 사장의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은 줄줄이 물러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정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 정하환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정길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한전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의 간담회를 열고 국정 철학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교체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무려 5년간 한전을 지키며 ‘최장수 CEO’로 기록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임기를 3개월 남겨 두고 사직서를 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사장 공모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여권 내 정치인, 대선캠프 인사, 산업부 퇴직 간부 등 이름이 거론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그만두는 물갈이 인사가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임기를 남겨 두고 하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기관장 교체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한수원이 노후 원전 중단과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 많은 난제를 떠안게 되면서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는 관측이 있다.

더욱이 문제는 발전사 등 공기업의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승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기업의 한 임원은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대행 체제로 버티고 있지만,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중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측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대부분 다 마치고 3~5배수 내로 추려졌다”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된 곳도 있다. 1월 말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올해 한국경제, 지속성장 위한 변곡점”

김용진 기재2차관, 저성장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해결에 정책 중점 밝혀

김용진(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새 한 단계 도약하려면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틀을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만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발표를 받으면서 걱정이 많았다”며 “새 정부의 국정 과제 하나하나가 다 어렵다 싶었는데,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하며 구체화시키고 현실성 있게 다져 여기까지 왔다”고 돌아섰다.

그는 “지난해에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큰 어려움이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경제성장은 3%대를 유지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한 해였다”고 평했다.

이어 “경제정책 방향, 재정정책 방향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재부) 예산실이 경험치 많지만 아마도 이렇게까지 예산편성 방향이나 재정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지난해가 변혁을 준비한 해였다면, 올해는 실제 변혁을 이루는 원년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변하고 구조를 바꿔 달라지는 것들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나가는 본격적인 시기”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혁신, 국가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저성장 양극화 문제도 있다”면서 “저성과 양극화를 벗어나려면 성장의 지속가능성, 혁신성장 문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큰 터닝포인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한편으로 김 차관은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래 도전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구조 혁신을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데, (이 때문에) 선제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쌍란’의 의미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당 대표실의 배경판을 바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두 배가 될 때까지’라는 의미로 개란 쌍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新設 합당 방식”... ‘국민+바른’ 공식 통합추진 기구 출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을 위한 공식 기구가 3일 출범했다. 그간 통합 논의를 위한 정책 연대나 의원 간 개별접촉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은 통합추진 협의체(통추협)를 중심으로 설 명절 전까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통합의 방식은 단순한 ‘당 대 당’ 합당이 아닌 새로운 당을 만드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1 형식의 단순 합당이 아니라 신설 합당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 그

래서 신당 창당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창당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예상컨대 다음 달 말 안으로 신당 창당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새 당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당이 진행된다. 이때, 의원들의 당적은 그대로 승계된다.

전날에는 통추협 출범을 위한 양측의 상권계성격의 모임도 개최됐다. 국민의당 이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정운천 의원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통추협 구성 관련 사전조율에

나섰다. 정 의원은 회동 결과와 관련해 “(양당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통합논의가 빨리지는 만큼 양당 내 통합 반대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박지원 의원은 전날 “(양당 통합은) 호남·비호남의 박정희 명령을 되살리는 보수대야합”이라며 거듭 반대외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통합기류에 제동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바른정당 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 조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더딘 ‘자율주행차’立法... ‘임시운행’ 수준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美, 법안 공개 후 여론 반영 수정안 마련  
獨, 금지 규정한 ‘비엔나협약’ 개정 주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내 법안이 임시운행허가를 법제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법안 제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주행차로 경제해야 할 국가인 미국, 독일 등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입법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보다 법안 제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네바다 주 의회가 2011년 6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법제화했다. 이후 2012년 4월 플로리다주, 2012년 9월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법제화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운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연방 하원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의 구현과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율주행차 법안을 신속하게 공개한 후 충분한 여론 반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주목했다. 미국은 2015년 말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1차 법안 초안을 공개한 후 그다음 해 관련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체인증과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등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독일은 자율주행을 위해 2014년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비엔나 협약의 개정 주도했다. 비엔나 협약은 사실상 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6년 3월에 개정돼 자율주행을 허용했다. 독일은 2015년 9월 자율주행 시행 전략 발간하고, 2년 뒤인 2017년에는 연방정부가 나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 자율주행차 사업을 선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의 시작이 늦고, 관련 법 제도 준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율주행 정책 범위는 시험운행 기준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 산업까지 다양하고,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체계화한 정책 지원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김임권 수협 회장 “공적자금 조기상환 후 매년 3000억 어민 지원”

김임권 수협중앙회(이하 수협) 회장이 이르면 2021년까지 공적자금을 모두 갚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공적자금 상환 목표 시점 이후인 2022년부터는 어민 지원에 매년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2일 시무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협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수협은 예금보험공사와 2001년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고 1조1000억여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수익을 빚 갚는 데만 쓰고 어민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산 분야와 어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됐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예초 수협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올해부터 11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수협은 이를 앞당겨 지난해 127억 원을 상환하면서 본격적인 상환 작업에 들어갔다.

수협은 올해부터 3000억 원씩 상환해 이르면 2021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3000억 원을 어민 지원에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총력을 기울여 공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시무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협중앙회

적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수산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2조2000억 원이다. 이 같은 수협의 구성이 현실이 되면 정부 예산이 13% 이상 증액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

##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양당, 위원장 배분 합의... 기존 개헌특위 자문안 ‘이념’ 논란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여기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또 각 특위 아래에 두는 2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는 교섭단체가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헌·정개특위 산하 2개 소위(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 산하 2개 소위(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의 위원장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협의 이후 나눠 맡게 된다.

여야는 개헌·정개특위(25명)와 사개특위(17명) 위원 구성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개헌·정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사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올 6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의 자문안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예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보고서는 위원들 간 대립 속에 지난해 말 말에야 만들어졌고, 전날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이번 자문안엔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보수진영이 반발하는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은 부분도 논란이 됐다. 김미영 기자 bomnal@

# 교통法規 상습 위반자 올해부터 유치장 구금

### 경찰청, 年 10회 이상 위반하면 특별관리 대상자 지정後 계속 법규 위반땐 즉결심판

올해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들은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제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고 전했다. 첫 시행 단계의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 명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명단이 갱신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관리 대상자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도 통상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해 범칙금과 벌점을 몰려 처벌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긴다.

또 즉결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악성 운전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동장군 '알미운 새해인사'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3일 서울 강남대로 인근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을 꺼내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준근 기자 foto@

## 학자금貸出 금리 소폭 인하 2.20%로... 131만명 이자부담 20억 경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 2.25%보다 0.05%포인트 낮춘 2.20%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에도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자금 대출금리 인화로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2018학년도 1학기 학생 약 131만 명의 이자부담이 2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는 2017학년도 2학기 100만 원에서 2018학년도 1학기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오른 233만 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소득분위(구간) 상정에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최경환·이우현 의원, 오늘 拘束여부 판가름

불법포퓰리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시간 319호 법정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진행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별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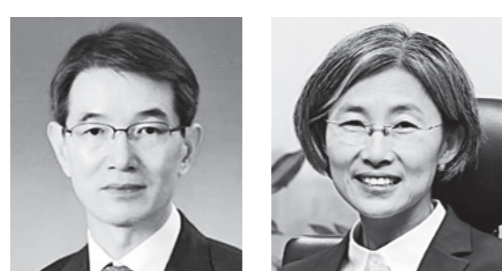
서 국정원 특별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도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지난달 20일 취재진과 만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대법원이 두 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맞이했다.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본관에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법조계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이 사법 개혁의 일환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법관은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안 대법관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행정판례연구회의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 연구회 회장, 언론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안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

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다양한 법률지식과 우수한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우현 대법원장 시절 비사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안 대법관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인 민 대법관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여러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한편 안 대법관, 민 대법관 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인사이다.

장효진 기자 js62@

### 檢, 대사관 女직원 성추행 혐의 前駐에티오피아 대사 기소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달 28일 김 전 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에티오피아 대사를 지낼 당시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김 씨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성 비위 행위를 확인한 뒤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9월 김 씨를 파면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사팀 제7-03703호 (2017.08.24 ~ 2018.08.21)

아들아 펀드에 이어 주식투자도 실패했다가 얘기를 들었다. 유안타가 문대대로 전해오라는 비금세가지.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티레이더 부디 성공투자 하기를 바란다.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홈페이지 [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産銀 ‘금호타이어 매각’ 三修는 없다

채권단 반발·6월 지방선거 앞뒤 'P플랜' 가능성 낮아  
기존 구조조정팀에 M&A·대외협력팀 추가 TF 구성  
"신속한 마무리 위해"... 업무 지원 변호사 2명도 파견

지난해 금호타이어 매각에 실패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재매각을 위해 조직을 보강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산업은행은 매각작업과 구조조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3개 팀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매각에 TF를 꾸리는 구조조정1 CR3 팀에서 담당해 왔다. 여기에 인수·합병(M&A)팀, 대외협력팀을 추가하고 법무 업무를 지원할 변호사 2명도 파견했다. 구조조정팀에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M&A팀의 매각 작업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매각에서 문제가 된 상표권 분쟁 등 법률적 사안은 파견 변호사들이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타이어 이슈가 지역 민심과 연관이 깊은 만큼 대외협력팀은 국회와 언론 등 대관·대언론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TF를 구성하면서 그간 금

호타이어 이슈를 주도해 온 구조조정실 인력도 교체됐다. 그간 CR3팀을 이끌던 정성욱 팀장과 금호타이어 업무만 약 10년을 맡아 온 양재호 부부장 대신 유병수 팀장이 앞으로 금호타이어 실무를 지휘한다. 산업은행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TF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TF의 첫 성과는 이달 중순께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이 불발된 후 지난해 9월 자율협약 체제로 들어갔다. 이후 금호타이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정상화 방안 초안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채권행사 유예기한을 연장해 결정을 늦춘 상태다. 이에 늦어도 2~3주 내 처리방안을 마련해 채권단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의 일방적인 '수혈'로 연명하는 방안

금호타이어 관련 일지	
2010년 1월	채권단 관리절차 개시
2014년 12월	채권단 관리절차 해제
2016년 2월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2017년 1월	우선협상자에 중국 더블스타 선정
2017년 9월	더블스타로 매각 무산
2017년 11월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 선언
2018년 1월	채권단 금호타이어 회생안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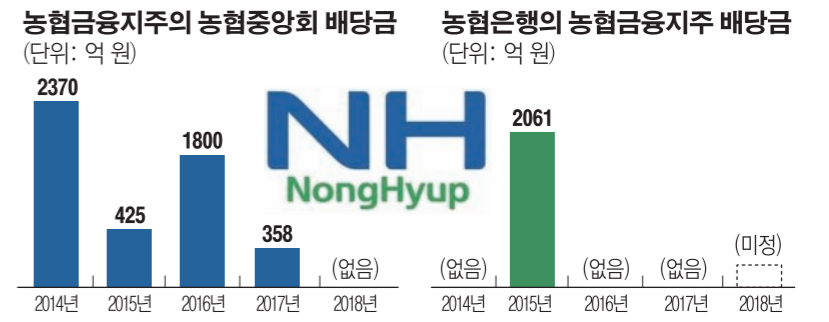
금호타이어 주요 주주구성 (단위: %)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KDB산업은행	2133만9320주	13.51
우리은행	2235만7561주	14.15
국민연금	1586만4405주	10.04
우리사주조합	2만4897주	0.02

금호타이어 영업이익 (단위: 억 원)	
2015년	1360
2016년	1201
2017년	-507

외에 다른 방식의 정상화 방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일PwC의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 중국 부분의 부실이크 채권단만 단독으로 추가 자금 투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010년 이후 이 회사에 신규 자금 1조1000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달 SK그룹이 비공식적으로 금호타이어의 인수를 타진한 후 인수조건 이견으로 불발됐으나 TF에 M&A팀이 포함된 만큼 재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SK그룹 외에도 다수의 중·소형 사모펀드(PEF)가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된 P플랜(단기 회생절차)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

은 것으로 파악된다. 산은 이외 채권은행들의 반발은 물론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 지분 14.15%와 6000억 원 규모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무담보 채권이다. 1조6800억 원 규모 담보를 설정한 산은은 P플랜에 몰입하더라도 상당한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이번 TF체제의 성과를 본 후 향후 중요한 구조조정 업무를 TF체제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TF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절차를 매뉴얼화해 앞으로 활용할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 농협금융, 올해 배당금 '0원'

2016년 계열사 실적 부진 영향  
회계상 결손 법인에 '제로' 산정  
농협은행 작년 3분기 순익 증가세  
금융지주 농금채 부담 가중될 듯

당기순익의 7285억 원을 기록했고, 이 중 농협은행은 3분기까지 당기순익 5160억 원을 달성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작년 한 해 간 은행에서 순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금융 계열사의 수익이나 손실이 농협중앙회 손익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평균 2년의 시간이 걸린다. 농협은 지주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지주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다시 농협중앙회에 배당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지주-중앙회간 배당-재배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의 농금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금채는 2012년 금융지주 계열사를 중앙회에서 독립시키는 신경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채권이다. 정부의 농금채 이자보전 지원이 작년 끝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이자 1700억원 정도를 감당해왔다.

농협금융지주의 농금채 이자 부담이 내년부터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배당금 지급을 못하게 됐다. 금융지주가 2014년부터 농협중앙회에 배당금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가 올해 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낼 배당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사실상 농협은행이 금융지주에 배당을 못하게 되면 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배당할 금액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융지주는 2017년 초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로 750억 원만 배당받았고 농협중앙회에 385억 원을 배당했다. 이 금액은 2017년 한 해 동안 금융지주가 회사채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쓰인 1년 평균 지출액 150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금융지주가 받는 수익금(계열사 배당금)보다 지출(연간 비용)이 많은 셈이다. 회계상 결손이 난 법인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기에 올해 금융지주의 배당금은 없다. 내년에는 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낼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앞으로 농금채 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농협중앙회의 개시카우 역할을 하는 금융지주의 배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019년은 돼야 금융지주로부터 200억 원 이상 수 준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금채 이자도 어느 정도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지주가 분기별로 농협중앙회에 내는 농업 지원 사업비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올해 금융지주가 부담할 농업사업지원비 추정치는 3858억 원으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2.5%를 농협손보 1.5%, 투자증권 0.3%, 농협캐피탈 회에 낼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금리인상에... 中企·家計 연체율 상승

은행 시장금리 반영 대출금리 인상  
작년 11월 말 0.49%로 두 달 연속 ↑  
대기업·주택담보대출은 상승폭 낮아

구분	2017년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9월말	10월말	11월말
기업대출	0.58	0.65	0.67
대기업	0.4	0.42	0.43
중소기업	0.63	0.71	0.74
가계대출	0.25	0.27	0.28
주택담보대출	0.18	0.19	0.19
신용대출 등	0.41	0.46	0.47
총 원화대출	0.43	0.48	0.49

다. 상대적으로 두 달 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3%포인트,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0.01%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낮았다. 지난해 11월 가계, 기업할 것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11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시장금리 인상으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주요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보증서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대비 9-11월 동안 은행들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국민은행이 3.87%에서 3.92%, 신한은행 3.43%에서 3.49%, 우리은행 3.37%에서 3.40%, 하나은행 3.44%에서 3.46%, 기업은행은 3.69%에서 3.74%로 증가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단기간 내 대출 규모가 급증한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대비 11월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3.45%에서 3.72%, 신한은행 3.99%에서 4.21%, 우리은행 3.93%에서 3.69%, 하나은행 4.67%에서 4.86%, 카카오뱅크 3.7%에서 3.88%, 케이뱅크는 4.67%에서 4.89%로 올랐다. 금값인 일반은행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연체율 상승은 신규연체 발생액(1조2000억 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 원)를 상회했기 때문"이라며 "시장금리 상승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코픽스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중소기업은 경기상황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더해져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www.douzone.com

# 올 A+ 회계프로그램

##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기, 입력하여 기정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47% / 데이터 유출 방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13% / IT관리비용 절감		

**DOUZONE**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달성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기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기정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천연가스 자동차는 **하늘색**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송용 천연가스 보급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CNG 버스    • CNG 택시    • LNG 야드트레일러    • LNG 트럭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

# 말 아낀 최태원...중동사업은 다시 주목

(SK그룹 회장)

SK 신년회서 질문 즉답 회피  
건설·에너지 등 다방면 사업 진행  
UAE와 연관성은 전면 부인

신사업 추진과정서 암초 만나  
청와대와 논의했을 가능성도

최태원 SK 회장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SK그룹의 중동 사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9-12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고 두 사람의 회동은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둘의 회동 목적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UAE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광진구 위귀힐에서 열린 SK그룹의 신년회에서 UAE 사업과 관련해 임 비서실장을 만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과 최 회장이 지난해 12월 초 만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두 사람의 만남과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별개”라며 “SK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만났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SK그룹은 현재 중동에서 건설, 에너지, 유통, 해운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예멘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SK건설은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 제3 대교 건설, 유라시아 해저터널 공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플랜트 공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이란 최대 민영 에너지 회사인 파르시안 오일엔지니어가 발주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타브리즈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따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총사업비 34억 유로(약 4조3600억 원)가 투입된 5000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 민자발전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자원 수송 전문 선사인 SK해운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SK네트웍스는 중동사업부를 신설, SK E&S는 LNG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최근 SK그룹은 중동지역 사업 확장을 위한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최 회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및 오찬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장은 제작된 UAE를 방문해 국부펀드 MDR, 석유회사 MP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모델 구축을 논의했다. 당시 최 회장은 정철길 전 SK에너지 화학 위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최 회장은 임 비서실장을 만나기 전 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독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UAE 아부다비의 2030장기플랜 설명을 듣고 정유·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다비 2030장기플랜은 아부다비의 경제 기반을 효과적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다변화한 고부가가치 경제 건설을 이룩하는 계획이다. 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 방산, 제약·생명공학, 관광, 의료 등의 전략적 확충을 통해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진행 과정 중에 SK그룹이 암초를 만났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두바이시의 하수처리장 공사 발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SK가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UAE의 견제를 받고 청와대와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업이 전혀 없다”면서도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원론적인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발굴·추진 SK하이닉스, 임원급 전담조직 신설

이달末 수백수석서 측정결과 공유  
측정 지표 지속적으로 개선 계획

SK하이닉스는 올해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전담하는 임원급 조직(지속경영추진담당)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직에선 반도체 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제조 공정에서 수질·대기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저전력 신제품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해 에너지 절감에도 앞장선다. 또 협력사의 환경, 안전, 건강 수준 개선을 지원하는 등 각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간에 걸쳐 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교수 등과 함께 논의와 검증 거쳐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했다. 사법 측정 결과, 지난해 1-3분기 동안 SK하이닉스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금액은 5조15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거둔 재무성과(당기순이익)인 7조4220억 원의 약 69% 수준이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활용된 성과 지표에는 △생산 공정 및 제품 사용상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 개선 정도 △협력사 금융·기술·교육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와 같이 기업-환경-사회생태계 측면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반영했다.

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 금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인 법인세, 임금, 배당 등 사회의 경제 주체들에게 환원되는 금액 등도 포함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모두를 확대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 시민의 역할”이라며 “SK하이닉스가 속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물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그룹 관계사 CEO들이 모이는 수백수추진회의에서 측정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며 5G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새해 목표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 “자율주행차·AI 파트너 찾아라” 박정호 사장 나홀로 CES 간다 (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다음 주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8’에 국내 통신사 수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다. 지난해 CES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자율주행 개발 행렬을 맺은 만큼 올해도 관련 기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미디어 등 신사업 분야 글로벌 파트너사를 직접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래 융합사업 박람회로 탈바꿈한 ‘가전쇼’  
국내 통신업체 수장으로서 유일하게 참석  
1년 전 엔터테인먼트처럼 글로벌 협력 맺을 듯

업무 책임자들도 출장길에 함께 오른다. 자율주행을 비롯한 SK텔레콤의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ICT기술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CES에 별도 부스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CEO와 임원들이 참석한다”며 “자율주행, AI, 미디어, IoT 등 신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2016년 12월 취임 직후 이듬해 1월 CES 2017에 참석했다. 당시 박 사장은 AI, 커넥티드카 분야 글로벌 업체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사장은 특히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젠슨 황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자율주행기술 개발과 관련한 깜짝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양사는 4개월 뒤인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박 사장은 또 CES 기간 중 인텔 관계자들과도 면담하고 5세대(G) 통신 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 김조원號 ‘뉴KAI’ 갈 길 멀다

대대적 혁신 따른 제도약 관심  
회계 투명성 장기 긍정적 효과  
고등훈련기 수출 등 불안 여전



한 모습을 보인 것은 선급금에서 진행률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며 “회계기준 변경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방산비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항공우주(KAI)가 김조원(사진)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 가운데 올해 제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는 납품 재개 등으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나 지난해 실적에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연말 작년 예상 실적을 종전 3401억 원 영업이익에서 919억 원 영업손실로 변경했다. 같은 기간 예상 순이익은 2300억 원 흑자에서 1503억 원 적자로 변경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으로 매출의 경우 시장 컨센서스 대비 30.4%, 영업이익은 43.5% 하회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적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회계 기준 변경과 관련한 이슈가 올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에 따른 것이다.

KAI 측은 “작년 실적 전망치가 저조

하나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KAI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우선 2013년 계약한 1조1857억 원대 T-50 고등훈련기 이라크 수출 건에 대한 협의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KAI 측은 이라크 측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재 수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KAI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결과 발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APT 교체사업은 미 공군의 노후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초도물량만 17조 원 규모다. 미 해군과 가성적기 등을 포함하면 1000여 대, 38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잉-사브 컨소시엄과 경쟁하고 있는데 만약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제 3국 시장 개척도 용이해져 최대 100조 원대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문선영 기자 moon@

## 새해 중형 SUV ‘新車 격전의 場’ 뜨겁다

현대차, 쉐보레 4세대 출시로 ‘기아차 쏘렌토’ 추월할 재비  
하반기 제네시스 SUV 내놔...한국지엠은 에쿠닉스 판매

올 한 해 중형 SUV 시장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라이프사이클(제품 교체주기) 측면에서 가장 유리했던 기아차 쏘렌토가 신차 효과를 앞세워 시장을 석권하는 사이 현대차 쉐보레 4세대 신차를 준비 중이다. 한국지엠은 걸출한 경쟁자인 에쿠닉스를 들여올 예정이다.

3월 현대차에 따르면 쉐보레 4세대(코드네임 TM)가 이르면 1분기 첫선을 보인다. 6년 만에 ‘풀모델체인지’로 거듭난 새 모델은 파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소형 SUV 코나에서 선보였던 분리형 헤드램프를 신형 산타페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동급 경쟁 모델인 쏘렌토와 비교했을 때(산타페와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지만, 페이스리프트 등 디자인 변화를 시도한 쏘렌토가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쏘렌토는 지난해 총 7만8458대가 판매돼 현대차 그랜저, 아

반데, 소나타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판매됐다. 쉐보레는 국내에서 12월 4522대, 2017년 1년간 5만1661대 판매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제네시스의 뒷바퀴굴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첫 SUV도 등장한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하며 세그먼트별로 2가지의 SUV 출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뉴욕모터쇼에서는 뒷급으로 등장할 콘셉트카 GV80을 선보이기도 했다.

첫선을 보일 제네시스 SUV는 현행 G80의 V6 3.3엔진과 네바퀴굴림 H트랙을 이용할 전망이다. 주력시장은 미국이고, 경쟁 차종은 렉서스RX와 인피니티QX 등으로 지정해 폭넓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지엠도 중형 SUV 에쿠닉스 출시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에쿠닉스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 거둔 쉐보레의 베스트셀링



산타페 4세대. 사진제공 현대차

SUV”라며 “동급 차량 대비 뛰어난 연비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에쿠닉스는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SUV 캠퍼의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다.

한편, 소형 SUV 인기도 동반한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스토닉이 기존 소형 SUV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쌍용차 티볼리와 함께 소형 SUV 시장 전체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평가다. 코나는 성능으로, 스토닉은 가

성비로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코나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2618대, 7월 출시 이후 총 23522대 판매됐다. 스토닉은 12월 1813대, 연간 9133대 판매를 기록했다. 코나의 경우 올해 전기차 모델 출시도 앞두고 있어 친환경차 영역으로의 확장도 기대된다. 소형 SUV의 약진으로 준중형 세단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엔트리카(entry-car) 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IT로 完全무장...모터쇼 대신 전자쇼 간다



##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CES 2018 가는 완성차 업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 월드트레이드센터(LVCC)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개막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전자기업은 물론 자동차와 여행, 물류회사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총출동해 첨단 IT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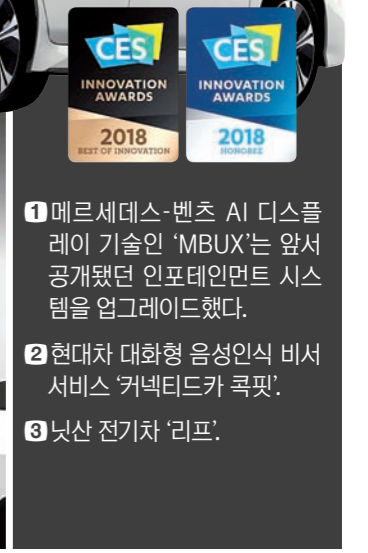
행사의 성격도 단순 IT기에서 '자동차 시대'로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해 GM은 북미오토쇼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CES 2017에서 2세대 볼트(전기차)를 탈락 공개해 버렸다. GM 최고경영책임자의 기조연설 역시 CES에서 먼저 공개하면서 북미오토쇼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제 모터쇼보다 전자쇼의 중요도가 더 커진 셈이다.

완성차 메이커 CEO들도 북미오토쇼에 앞서 CES에 먼저 얼굴을 내보이면서 행사의 의미를 키웠다. 이처럼 CES의 위상이 점차 커지면서 일주일 차이로 열린 북미오토쇼가 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할 처지가 됐다.

◇스마트홈에서 스마트시티로 주제 확대 = 올해 행사의 공식 슬로건은 '스마트시티의 미래(The Future of Smart Cities)'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가 가정 내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스마트홈'이 화두였다. 1년 만에 이런 스마트 영역이 비좁은 가정을 벗어나 드넓은 '도시'로 확대된 것.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낸 기술이 바로 첨단 자동차들이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에는 공공시설, 보건, 경비·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AI 시스템과 보안장비, 교통, 네트워크 기반시설 등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구현되는 추세와 미래상을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자동차 기업의 키워드는 첨단 디지털 운전석(cockpit)이다. 운전자를 보조하거나 오히려 이끌어갈 첨단 기술이 집약된 운전석이 화두가 된 셈이다.

콘티넨탈은 통합 운전석 시스템으로 미래형 프리미엄 디자인이 차 실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앞유리를 디스



**내주 개막 전자쇼에 완성차 업계 출동  
'첨단 디지털 운전석' 화두 미래상 조망  
콘티넨탈은 '통합 운전석 시스템' 선포  
벤츠는 AI 디스플레이 'MBUX' 기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4년 연속 참석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콧핏' 첫 공개**

플레이로 이용하고 터치스크린 기능까지 갖춘 새 기술을 선보인다.

완성차 메이커도 속속 새 기술을 선보인다. 스위스 자동차 디자인 회사 린스피드는 하만 쇼케이스 현장에서 자율주행 마이크로 버스 콘셉트카 '스냅(Snap)'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드와 닛산, 토요타, 다임러,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기존 메이커 역시 전기차를 비롯해 첨단 자율주행차를 대거 출품한다.

공개를 앞둔 닛산 전기차 리프는 지난해 11월 CES 2018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완성차 모델이 모터쇼가 아닌 IT 전시회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미국 EPA(환경보호청) 기준으로 한 번 충전에 150마일(약 24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2세대 모델인 리프는 자동차와 IT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2축보행 로봇 '아시모'를 개발한 일본 혼다는 이번 행사에서 3가지 인공지능 로봇을

선보인다. 사고나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AI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인다. 이른바 '메르세데스-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줄여서 'MBUX'로 표기한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모두 담아낸 MBUX는 앞서 공개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메르세데스-미'의 시스템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 이와 함께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 '인텔리전트 월드 드라이브'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

◇대화형 가상비서 기술 선보이는 현대차 = 기

아차 스타링어를 북미오토쇼 '올해의 차' 후보에 올린 현대차그룹은 앞서 열리는 CES에도 총력을 다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격년으로 번갈아 참석했지만 올해부터 동시에 CES에 출격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4년 연속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신형 수소연료전지차를 앞세워 친환경 기술을, 기아차는 ADAS(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최근 개발을 완료한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처음 공개한다. 이른바 '콧핏(Cockpit)'이다. 모비스 기술

을 바탕으로 한 이 '지능형 가상비서'는 운전자가 차에 오르는 순간, 운전석 전면 디스플레이에 홀로그램 형태로 등장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되는 도중에는 차 안에서 V2X(Vehicle to Everything)기술, 즉 차와 다양한 외부기기와 연동할 수 있다. 내 차의 위치와 주변 차들의 흐름, 교통신호 등 각종 주행 상황을 3D 화면으로 볼 수도 있다.

가상 비서는 승객이 주행 중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해준다. 현대차가 2019년부터 양산차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기술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현대모비스 '운전자 구출 시스템'으로 CES 출사표

# 졸음운전 판단되면 알아서 갓길 정차

운전자 눈 깜박임·차선 유지 여부 모니터링  
올해 도로에서 기술 검증...2021년 상용화

보쉬, 마그나, 덴소 등 한변쯤 들어봤을 법한 자동차 부품사도 속속 CES에 자리를 마련했다. 첨단 IT 기술을 앞세워 기술력을 선점하는 동시에 완성차 메이커를 향한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다.

글로벌 7위 수준인 현대모비스 역시 CES에 출사표를 던진다. 화두는 이른바 '운전자 구출 시스템'을 뜻하는 'DDREM'(Departed Driver Rescue&Exit Maneuver)이다.

모비스는 이번 행사에 운전자가 졸음이나 위급한 상황 탓에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차를 스스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해 정차시키는 신기술을 내놓는다. 운전자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를 스스로 움직여야 하므로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셈이다.

이를 위해 운전자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 졸음 탓에 차를 지그재그로 움직이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채 눈을 자주 감는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낸다.

차 안팎에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적용된다. 먼저 실내에 장착한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선 이탈 여부와 눈 깜박임 패턴 등을 체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졸음 여부를 판단한다.

차 밖에서는 차선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전방 카메라가 차선을 넘나들며 불안한 주행을 하는지 확인한다. 졸음운전으로 판단되면 자율주행모드로 전환해 차를 이동시킬 안전한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관련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1년으로 잡았다. 현재 빅데이터를 통한 실차 시험과 다양한 외부 돌발 상황을 정보에 포함하고 있다. 실함이 반복될수록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 1 현대모비스 'DDREM' 시스템은 운전석 시트 등받이를 통해 졸음운전-건강상 위급상황을 감지한다.
- 2 운전자 구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밀지도와 카메라 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를 파악한다.
- 3 자율주행(레벨4) 시스템을 통해 안전지대까지 이동, 스스로 차를 세운다.

부터 실제로 도로에서 기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애그뉴(David Agnew) 이사는 관련 기술에 대해 "탑승자의 건강(health)과 안전(safety)에 초점을 둔 자율주행 기술이다"라며 "현대모비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별도 부스를 마련해 팝업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선보인다. 자율주행 상태에서 운전대가 사라지고, 일반 주행을 시작하면 운전대가 다시 솟아오르는 시스템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하이난 미션 힐스 블록버스터 골프 180

나도 그 곳에 가고 싶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맞장 뜬 그 곳  
나도 가서 친구랑 원 없이 샷 대결 해보자!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블랙스톤은 잊어라  
이 곳이 진정한 블랙스톤 골판왕이다

세계 최초·최대 골프 상품·180홀 라운드  
5성급 호텔룸·내 맘대로 골라 먹는 호텔 조·석식  
매주 목요일(3박 5일) 일요일(4박 6일) 출발

가온투어 1566-0672 · 빅토리골프 02-511-9011 · 세양여행사 02-701-5678 · 오케이골프 1644-6578 · 이룸투어 02-512-7705  
이메스투어 02-775-8383 · 인월드여행사 02-735-5900 · 정성여행사 02-3789-6645 · 타이가골프 02-598-2007 · 트라움여행사 02-515-3430

‘황금 개띠’ 키워드로 본 식음료 트렌드

<b>G</b> Great demand for HMR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
<b>O</b> Organic food trend	유기농 제품 관심 집중
<b>L</b> Low sugar, low sodium	설탕·나트륨 함량 감소
<b>D</b> Dessert at convenience stores	편의점업계 디저트 대체로
<b>E</b> Ethical consumerism	윤리적 소비, 트렌드로
<b>N</b> Nutrition of superfood	슈퍼푸드 출시 잇따라
<b>D</b> Dried food	말린 제품 수요 증가
<b>O</b> Opinion on products	고객의견 적극 반영
<b>G</b> Genuine ingredients	원재료 100% 담은 제품 인기

# 한끼 먹더라도 ‘건강’이 먼저!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 식음료업계에는 컬래버레이션, 1인 가구 급증 등의 변화로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 독특한 신제품 출시 등의 이슈가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소비 패턴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는 무술년을 맞아 ‘GOLDEN DOG’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올해 예상되는 트렌드를 살펴봤다.

업계는 올해에도 가정간편식 수요(Great demand for HMR)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조 원을 웃돈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작년에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올해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달 서비스처럼 타 제품과 차별점을 강조한 브랜드와 제품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햄버거병, 살충제 검출 계란 등 대형 먹거리 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에는 유기농 제품(Organic food trend)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에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가격 부담도 큰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기농 식음료 출시가 이어져 구매가 쉬워진 것도 인기의 한 요인이다.

**슈퍼푸드·원재료 100% 제품**  
**유기농 식음료·저염식 등 관심**

건강상 열풍과 함께 설탕이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Low sugar, low sodium)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유제품부터 간편식, 심지어 간장까지 저당, 저염 제품이 등장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도시락에 이어 디저트(Dessert at convenience stores)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CU의 연도별 디저트 매출 신장률은 2014년 35%, 2015년 48%, 2016년에는 135%를 기록했다. 높은 접근성이라는 편의점의 장점과 전문점 못지않은 고급 디저트가 출시되면서 매출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국민 소득을 배경으로 가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환경, 동물 보호 등의 가치에 중점을 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패션, 식음료 등 유통업계 전반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이다.

슈퍼푸드 제품(Nutrition of superfood)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슈퍼푸드를 따로 사 밥이나 반찬 등에 넣어 섭취했다면 최근에는 음료, 과자 등에 다양하게 활용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건조 과일, 육포 등 말린 제품(Dried food)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섭취하기 간편한 것이 인기의 이유다.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품(Opinion on products)의 출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NS의 댓글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실제 제품에 반영하는 등 브랜드들은 최근 적극적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판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원재료를 100% 그대로 담은 제품(Genuine ingredients)들도 최근 인기다. 건강,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크슈머’같이 식음료 하나도 꼼꼼하게 보고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인공 향이나 각종 첨가물 대신 원재료만 담아 건강함을 살린 제품을 구매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 KT&G, 궤련형 전자담배 價格 올릴듯

세금 인상 따라 4500원선 유력... 이달 內로 價格 확정 전망

KT&G가 ‘필(Fit)’의 전용 담배 ‘핏(Fit)’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 가격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과 비슷한 수준인 4500원 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배경에 대해 업계는 담배세가 3000원에 육박하고 소매점 수수료가 10%가량인 점을 고려해 원가 부담이 큰 탓이라는 입장이다.

KT&G는 궤련형 담배세 인상에 따라 핏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이달 내로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핏의 인상 시 가격은 4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G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세부담금이 모두 인상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걸 변말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체 담배시장 1위인 KT&G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만큼 자사 전자담배가 일정 점유율에도

달할 때까지 가격 인상을 늦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자담배 밭이 출시 한 달여 만에 5만2000대가량 판매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당분간 아이코스 대비 가격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현재 가격이 장기화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인상 분을 확정지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과 29일 각각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궤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총 1247원 오른다.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골자인 양 개정법률은 의결 즉시 공포돼 시행에 들



어갔다. 법 시행 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량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세금 인상 분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한국필립모리스도 ‘아이코스(IQOS)’ 전용 담배 ‘히츠(HEETS)’의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KT&G의 가격 인상에 따라 브리티시 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의 ‘글로’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BAT코리아 측은 가격 인상과 관련해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바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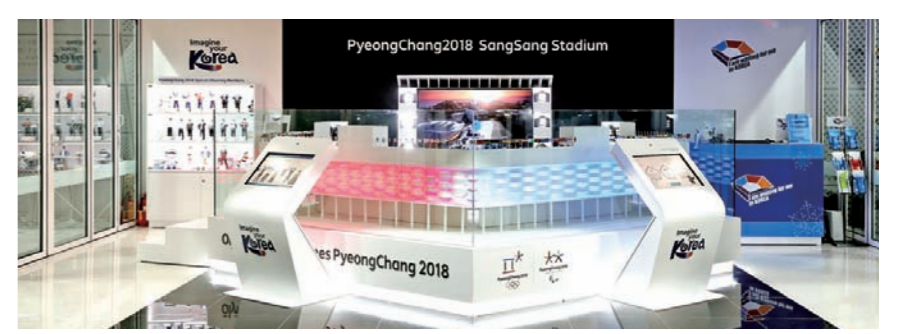
##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 달아오른 유통街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음 달로 성큼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올림픽 관련 행사나 기념 전시를 여는 등 고객 유치에 바빠 움직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을 축소 구현한 ‘상상 스타디움’을 전시 중이다. 3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전시는 4X4m 크기의 스타디움과 총 2017명의 응원단 피규어가 함께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일본 NHK와 요미우리TV가 방한해 취재할 만큼 남다른 관심을 얻고 있다.

상상 스타디움엔 해당 작품 외에도 경기 종목 구현한 홀로그램 영상과 무빙 레이저, 쌍방향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터치형 키오스크 등이 준비돼 있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21일까지 이어지는 신년 세일 동안 세일의 테마를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경품 행사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롯데백화점은 총 48명의 고객에게 ‘경기관람권·숙박권’ 패키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백화점 전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롯데카드와 ‘엘포인트’로 구매한 고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1등 다섯 명에게는 ‘폐회식(2매), 피겨갈라쇼 티켓(2매)’과 ‘온천 숙박권(2인실)’ 패키지를 증정하며 2등(5명)과 3등(38명)에게도 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상상스타디움’ 전경.

**DDP ‘상상 스타디움’ 홀로그램**  
**일본 방송국도 취재한 名所로**  
**롯데백, 경기 관람·숙박권 경품**  
**현대그린푸드, 선수촌 한우 공급**



현대그린푸드 케이터링 시연 모습.

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경기 관람권 및 숙박권을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도 21일까지 워터 스포

츠페어와 모피 대전 등 대형 행사를 앞세운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특히 스포츠 아우터와 스니커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워터스포츠 페어의 경우 50여 개 인기 브랜드가 온·오프라인에 걸쳐 총 150억 원 규모 물량으로 준비돼 있다.

백화점 외에도 평창맛이에 한창인 곳은 현대그린푸드다. 올림픽 기간 강릉 선수촌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한 현대그린푸드는 선수촌 내 주요 식당에 한우를 식재료로 사용한 한식 메뉴 20여 종을 선보일 방침이다.

올림픽 기간 사용되는 한우 물량은 약 17톤으로, 강원도 평창과 횡성 등에서 자란 청정 한우가 조달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올림픽을 통해 우리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올림픽을 계기로 앞으로 한우의 해외 수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후원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장난감은 늘었지만 친구들은 줄었습니다



문자는 늘었지만 소통은 줄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늘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밝은 인성이 자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 KB증권의 1주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KB증권을 찾아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1년,  
언제나 당신께 힘이 되는 든든한  
투자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평생 투자 파트너  
 KB 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5503호(2017년12월21일)

 KB 증권

# 소비자 우롱하는 허위賣物 ‘올한 줌..’

인천공항에서 일자리를 얻은 이모(26·여) 씨는 현재 사는 곳에서 통근하기 어려운 영등포에 원룸을 얻기로 했다. 부동산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처음 찾은 곳은 영등포구청 인근의 전용 19.8㎡ 원룸.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비슷한 크기의 주변 원룸 중에서는 가장 저렴했다.

그러나 집을 보려고 만난 중개사는 이 씨를 차에 태우더니 인근의 더 비싼 원룸들을 돌리 시작했다. 이 씨가 원래 찾던 곳을 가지고 하니 중개사는 그곳이 사장이 근처라는 등 자신이 올린 매물의 단점만 열거하며 이 씨의 청을 거절했다. 이 씨는 이날 살 곳은 마련하지 못했고 애꿎은 하루만 공치게 됐다.

이처럼 중개업소가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미끼로 내놓고 손님을 유인한 뒤 더 비싼 매물을 내놓는 허위매물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된 거짓매물은 지난해 11월에만 3375건에 달했다. 모바일 앱 직방이 자체적으로 가입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7~9월 서울 관악구에서 17.5%, 5~6월 구로구와 금천구가 각각 24.4%, 53.6% 적발됐다.

**저렴하고 좋은 방 올려 유인 실제 가보면 다른 방들 소개 직방·다방 등 모바일 앱 업체 3회 신고때 퇴출 제재하지만 광고료 받는 매출구조 한계 처벌보다 적자가 두려운 중개업계 과당경쟁이 원인**

이 씨가 당한 경우 외에도 허위매물 수법은 다양하다. 매물 소개 사진에 더 넓은 방을 올려놓거나 저렴한 매물을 확인하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에게 매물이 방금 팔렸다고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다.

이런 허위매물이 판치는 요인에는 중개사들의 치열한 과당경쟁이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가입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0만 명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해에만 1만8980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직방’, ‘다방’ 등 모바일 앱과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활용, 광고 비용을 들이는 경쟁까지 펼쳐지는 상황이 라 가장 최자가 매물이라도 동원해 사



적도 이어진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직방이나 다방 같은 모바일 앱들의 경우 중개사들로부터 광고이용료를 받는 매출 구조이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며 “처벌보다 적자가 두려운 중개업소들은 허위매물이라도 올리게 된다”고 귀띔했다. 직방의 경우 중개사가 강제 탈퇴가 되더라도 1년 이후 재가입할 수 있는 점, 다방의 경우 영구 퇴출까지 경고를 4번이나 받아야 하는 점 등이 중개사가 허위매물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허위매물은 모바일 앱만이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도 기회를 부린다. 네이버 부동산은 허위매물 근절을 목표로 ‘우수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중개사들은 네이버가 수수료를 더 걷려고 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콧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우수 중개사를 배지로 표시하는 대신 집주인 확인 매물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稅폭탄에 多주택자 항복할까

**최영진의 현안진단**

**4월 양도세 종과 이어 보유세 세금 내기 싫으면 집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라**  
**3월 이전 시장에 매물 나올 듯**

무술년 새해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세금 문제가 될 것 같다. 4월부터는 이미 예고됐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각각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3주택자는 최고 62%의 세율이 붙어 양도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다.

세금 내기가 싫으면 기한 안에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다. 어찌 보면 앞으로 주택 투자로 돈을 벌 생각을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그런데도 시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인구 감소에다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골격이 나올 듯하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과 지금의 재산세를 올리는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떤 식이든 보유세가 인상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부와 부동산 투자자 간에 이런 싸움이 심해질수록 주택시장은 아수라장이 될 여지가 많다. 정부 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이 계속 될 경우 터무니없는 고가(高價)를 형성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진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빈부차기 심해져 사회문제가 될지 모른다. 물론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고 하지만 토지 부족 등에 따라 한계가 있어 집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주택을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공공주택 입주경쟁까지 치열해져 이래저래 주택가격만 올리는 시장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들려고 하는 카드가 보유세 인상이다. 양도세는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집을 갖고 있는 한 세금을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부담액은 더 많아진다.

자금 여력이 튼튼한 다주택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봉급생활자가 집을 한두 채 갖고 있다면 부담을 느낄지 모른다. 전체 주택의 공사가 50억 원인 경우 중부세는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3000만 원 정도는 시가로 치면 70억 원쯤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정도의 금액은 별로 겁나지 않는다. 특히 가격이 세금보다 더 많이 오르면 겁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느껴 집 사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보유세가 생각보다 높은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소리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까 싶다.

양도세 종과에다 보유세 인상이까지 맞물리면 다주택자들은 어떤 방을 보일까. 모르긴 해도 손을 들고 항복하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 같다. 3월까지 관련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다.

부동산 대기자 choibak14@

# 떠오르는 수도권 東北部の 중심 남양주 다산신도시 入住 스타트

**지난 연말 ‘한양수자인 리버벨리스’ 시작으로 8월까지 8000가구 입주 다산역 2022년 개통, 잠실 30분대**

수도권 동북권의 떠오르는 신도시인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통합브랜드인 다산신도시의 최초 입주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 지금동, 도농

동 일대 전체면적 475만㎡에 2022년까지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포함해 3만2000여 가구, 약 8만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 중이다. 강남과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도시 전체가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첫 입주를 시작한 ‘한양수자인 리버벨리스’ 아파트는 진건지구 B8블록에 위치하며 최고 15층, 13개동, 640가구에 전용면적 74~84㎡ 규모로 구성됐다. 바로 이어 지난 연말 31일부터는 ‘아아파크’ 467가구(진건 C3블록)의 입주가 시작됐고 이번 1월에는 △자연엔롯데캐슬 1186가구(진건 B2블록) △자연엔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 일정**

블록	아파트명	시공사	전용면적(㎡)	가구수	입주예정	지구
B8	한양수자인 리버벨리스	(주)한양	74~84	640	17.12.29	진건 지구
C3	아아파크	현대산업개발	85초과	467	17.12.31	
B2	자연엔롯데캐슬	경기도시공사/롯데건설	60~85	1,186	18년 1월	
B4	자연엔이편한세상	경기도시공사/대림	60~85	1,615	18년 1월	
B6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반도건설	60~85	1,085	18년 1월	
B7	유승한내들 센트럴	유승건설	60~85	646	18년 6월	
C2	한양수자인 2차	(주)한양	85초과	291	18년 7월	
S1	자연엔이편한세상&자이	경기도시공사/대림/GS	60~85초과	1,685	18년 7월	
C1	유승한내들 골드뷰	유승건설	85초과	316	18년 8월	

\* 출처: 각 건설사

이편한세상 1615가구(진건 B4)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1085가구(진건 B6 블록)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총 7941가구(총 9개 블록)가 입주하게 된다.

‘다산신도시’의 특징점은 편리한 교통망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구리 IC와 인접해 있어 북부간

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고 전철인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의 다산역(2022년 개통 예정)을 통해 잠실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서울·경기 역대 최대 오피스 물량...空室 리스크

**작년 신규 공급 2016년의 2배...올해 또 17% 증가한 215만㎡ 단기간에 물량 소화 어려워 “서울 공실률 10% 웃돌 것” 전망도**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오피스시장에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이 쏟아져 대규모 공실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3월 신영에셋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는 215만㎡ 규모의 오피스가 공급된다. 지난해(183만 5007㎡)보다 17% 많은 역대 최대 공급량이다. CBD(도심권)에 14만㎡를 웃도는 센트로폴리스가 들어오고, GBD(강남권)에 삼성생명 일원동빌딩과 정담빌딩 등이 당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YBD(여

의도권)에도 2월께 한국교직원공제회 관 재건축 물량이 공급된다. BBD(분당권)에 판교 알파돔시티 6·3·4블록이 1분기 내 선보일 예정이고, 서울 기타권역에도 25만㎡에 육박하는 마곡 이랜드글로벌R&D센터와 마곡 코오롱미라기술원이 잇따라 준공된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시장은 신규 공급 물량이 2016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늘었다. 상반기 롯데월드타워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4분기 막바지 LG사이언스

파크 등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이 서울 기타권역에서 대거 공급된 게 결정적이었다. 전체 공급면적의 9%에 달하는 물량이다.

4분기 서울 오피스시장 평균 공실률은 9.4%로 전년 동기보다 1.7%p 상승했고, 서울 기타권역 공실률도 2.7%p 끌어올렸다.

당장 올해 1분기에 나오는 물량은 108만㎡를 웃돈다. 이 중 서울 기타지역에 공급되는 물량만 45만8439㎡다.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불꺼진 사무실이 그만큼 갑작스럽게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그나마 공유오피스 업체인 위워크를

비롯해 패스트파이브, 르호트 등이 서울 곳곳에서 꾸준히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 수준의 신규 공급이 발생하는 만큼 임차수요가 단기간 내 물량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서 계속되는 대기업 사옥 준공과 이전, 금융·보험사의 조직개편 등도 오피스 임차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재권 신영에셋 리서치팀장은 “올해 공급되는 물량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주요 권역 공실률 상승은 필연적이어서 서울 오피스시장 공실률은 10%를 웃돌 것”이라며 “판교발 IT업체들의 초고 임차수요와 공유오피스 업체의 확장 추세가 신규 공급을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오피스 임대시장의 향방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힐스테이트·자이 최고 브랜드에 20% 할인해도 8년째... 未분양 소진되면 再건축? 해답 없는 용인 중대형

경기 용인시의 일부 지역 아파트 시장이 중대형을 위주로 큰 침체를 보이고 있다.

3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이름값이 높은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상품가치를 높게 평가 받는 경우가 많지만 용인 수지구에선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용인 수지구 성북동의 성북 힐스테이트와 성북 자이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임과 동시에 3659가구의 대규모 단지지만 2010년개부터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8년째 악성 미분양 단지로 남아 있다.

시행사 일레븐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단지의 미분양 물량은 이미 8년 전 초기 분양가에 비해 엄청난 규모의 할인분양을 하고 있다. 분양 현장 관계자는 “초기 분양가가 8억6000만 원 하던

주택형은 7억9000만 원으로, 9억2200만 원 하던 주택형은 7억4000만 원으로 할인해 분양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며 “현재는 10% 정도의 회사보유분 물량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 가깝게 할인된 가격에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악성 미분양으로 보유 물량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단지의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현재 입주해서 거래되는 이 단지의 매매가는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성북 자이 1차의 전용 101㎡ 가구는 2017년 1월 5억7300만 원에서 같은 해 11월에는 5억1000만 원까지 떨어졌고, 성북 힐스테이트 2차 역시 같은 기간 7억2000만 원대에서 6억 원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수지구 성북동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성북동뿐 아니라 용인 전반적으로 중대형 아파트는 들어가기 쉬워도 나올 순 없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성북 힐스테이트자이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소진될 때쯤이면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농담까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 금주의 분양캘린더

무술년 1월 첫째 주는 전국에 총 847가구만 분양된다.

3월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새해를 맞아 분양시장도 한 주 쉬어가는 분위기다. 민영 아파트는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 404가구가 유일하다. 이 외 경기 안성시 아양동 ‘안성아양B6(공공임대)’ 4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 = 대우건설은 경기 하남시 현안1지구 1블록에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으로 총 404가구를 공급한다. 미사강변도시와 가까워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이 단지에는 BRT 정류장이 있고 5호선 덕곡역 개통이 예정돼 있다. 스타필드하남,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이 인근에 있다. 청약접수는 4일과 5일에 진행된다.

◇견본주택 개관(9곳)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지구우미린2차’ = 우미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20블록에 ‘별내지구우미린2차’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 84㎡, 총 585가구 규모이다. 별내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경춘선 별내역이 있다. 별내지구 주변에는 불암산, 수리산 등 자연환경이 많다. 교육시설은 셋별초등학교, 별가람중학교, 별가람고등학교가 가깝다. 견본주택은 5일 개관할 예정이며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817번지에 위치한다.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파크자이’ = GS건설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44-10번지 일원에 ‘춘천파크자이’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30층, 7개 동, 전용 64~145㎡, 총 965가구가 조성된다. 춘천고속버스터미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경춘선 남춘천역에 가깝다. 인근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의암공원, 공직전조각공원, 춘천수변공원 등이 있다. 견본주택은 5일 강원 춘천시 퇴계동 636번지에서 개관한다.

충남 당진시 대덕동 ‘당진대덕수정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 = 중흥건설은 충남 당진시 대덕수정지구 A4블록에 ‘당진대덕수정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0개 동, 전용 84㎡, 총 482가구 규모이다. 주변에는 대덕공원, 계림공원(2020년 7월 예정), 아미산 등 자연환경이 많다. 당진시청, 당진버스터미널, 롯데마트(당진점), 농협하나로마트가 가깝다. 교육시설은 당진초등학교, 호서중학교, 호서고등학교 등이 있다. 견본주택은 5일 충남 당진시 수청동 1044번지에 마련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날짜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명	
1/4(목)	접수	경기	안성시	아양동	안성아양B6(공공임대) 1순위	
			하남시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 1순위	
1/5(금)	오픈	경기	김포시	양촌읍	김포양곡마을(1B2)	
			김포시	양촌읍	김포양곡마을(1D1)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지구우미린2차(A20)	
			강릉시	연곡면	강릉영진코아루비티레스타	
			원주시	단구동	원주단구내안캐운티에듀파크(1BL)	
	접수	경기	안성시	단구동	원주단구내안캐운티에듀파크(2BL)	
			안성시	아양동	안성아양B6(공공임대) 2순위	
			하남시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 2순위	
			충남	당진시	대덕동	당진대덕수정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
			충남	당진시	대덕동	당진대덕수정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

(주)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 키워” VS “다른 복지혜택 줄어 더 빈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미국 CNBC방송은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히 팽팽하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2년 기한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월 560유로(약 72만 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했다. 실험 기간 중 취업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된다.

이 실험의 핵심은 실업자가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제 금액도 현재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월 560유로로 책정했다. 실험 대상자로 선정된 미카 루수넨 씨의 경우, 16개월간 실업 상태였으나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무렵에 한 IT 기업에 취직했다. 그는 CNBC에 “지금의 일자리를 얻기 전에도 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었다. 여전히 이 선택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일자리에서도 계속 일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사회를 위한 ‘윈윈(Win-Win)’ 상황”이라고 호평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실험이 끝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편적인 무료 교육같은 복지혜택이 일반적인 핀란드에 새로운 경제적 실험인 기본소득제의 최전선에 섰다는 일이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제는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

## 핀란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 1년

###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 개요

대상	실업급여를 받는 성인 중 2000명 무작위로 선정
기간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금액	매월 560유로(약 72만 원) ※현 실업급여와 비슷한 수준
방법	취직 이후에도 계속 지급 /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음.
평가	실험이 끝난 후 정부 공식평가 나올 예정

### 찬성

취직해도 수당 안 없어서

실업자들 일하도록 장려

복지제도 좀 더 유연하게

###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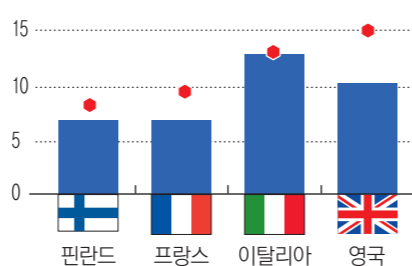
실업자 대상으로 실험 잘못

저임금 일자리 창출 목표 야나

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지지하면서 최근 수년간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은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근로자들

### 기본 복지 혜택과 기본소득제에서의 빈곤을 비교 (단위: %)

■ 기본 복지 혜택 ● 기본소득제 도입 시 ※출처: OECD



을 위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새 직업교육을 받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용용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의 목표는 이게 전부 아니다. 복지제도의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 실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핀란드 정부는 이 제도가 기존 복지 프로그램보다 더욱 유연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 실험을 주관하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미스카 시마나 이년 연구원은 “이전과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찾고 싶다”며 “사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는 20년 전부터 진행됐다”고 말했다. 시마나이년 연구원은 또

“우리가 시험하는 기본소득제 버전 뒤에 있는 주요 아이디어 중 하나는 최소한 기본적인 실업급여 혜택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모두가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의 역습’의 저자인 안티 자우하야넨은 “우리의 길은 저임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과 사람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를 선호하지만 소규모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험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너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릇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며 실업자만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잘못된 실험이라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제는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72만 원)의 돈을 주는 방안이 부결됐다.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며 백수만 양산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네덜란드도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원할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기존 복지 혜택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어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세계의 공장 넘어 연구실로 ‘혁신 국가’ 도약 준비 끝났다

## 2018 주요국 경제 예측

### ① 중국

R&D 투자·학술 성과 높고

실리콘밸리와 기술 허브 구축

“미국 자살골 넣는 동안 도약”

지난 4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를 꼽으려면 단연 중국이다. 이제 중국은 양적 성장에 이 아닌 질적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석 연구원을 지낸 뒤 현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먼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프로젝트인 디케이티 기고에서 “2018년 중국이 혁신 국가로 발돋움하는 신호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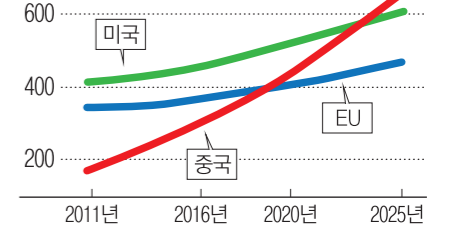
존슨에 따르면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길을 연 지 40년, 그간 중국에서는 8억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다.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2006~2015년 절반으로 줄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중국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닌 세계를 이끌 혁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혁신 국가’로 목표를 수립·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연구개발(R&D) 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늘리고, 특허 출원 건수를 현재 두 배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의 R&D 비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GDP 대비 0.9%에 불과했던 R&D 비용은 2016년에는 2.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말 “중국은 수년 전 저임금이 잠정인 나라였지만 이제 값싼 노동력은 기

### 미국·중국·EU의 연간 R&D 비용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출처: 배틀앤R&D매거진



업들이 중국을 찾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쿡 CEO의 말을 뒷받침하듯 중국은 기술 발전과 인재 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작년 1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중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를 제치고 22위를 차지했다.

학술적으로도 중국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스코프스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중 피인용된 중국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 미만이었으나 2016년 20%로 급증했다. 중국 대졸자 수는 2012년 620만 명으로 2001년과 비교해 6배 증가했다.

중국 지방정부도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중국 광저우 시는 기술 허브를 구축하고자 다국적 기업과 협업을 나섰다. 최근 제너럴일렉트릭(GE)은 8억 달러를 광저우 시에 투자해 아시아 최초 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 시 푸톈구는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로 이미 세계적인 유명하다.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혁신 국가’로 도약하는 데 2018년은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인민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지적하며, “미국이 자살골을 넣는 틈을 타 중국은 세계적 혁신 국가로 앞서나갈 것이고, 2018년 말 중국의 성공 스토리가 쓰이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페루 ‘악마의 커브’ 버스 추락 36명 사망



‘악마의 커브’를 불리는 페루 수도 리마 북부의 해안고속도로에서 2일(현지시간) 정오께 트레일러 트럭과 정면 충돌한 버스가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버스에 57명이 타고 있었으며 최소 36명이 숨졌고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페루에서는 열악한 도로 탓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은 “비극적인 사고”라며 숨진 이들을 애도했다. 리마/AFP연합뉴스

# 美 소매점 작년에만 9000곳 문 닫았는데...올해 더 큰 ‘閉店 쓰나미’ 온다

## 쇼핑몰, 상권 침체 우려해

### 폐점하는 스타벅스 고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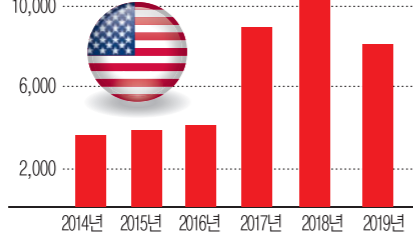
지난해 부침을 겪은 미국 소매업계가 올해도 어려운 시기를 보낼 전망이다.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올해 소매업계의 점포 폐쇄와 파산보호 신청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년은 미국 소매업계에 폐점과 파산보호 신청이 기록적인 한 해였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와 유통업체 시어스를 포함한 수십 개 업체가 매장 약 9000 곳을 닫았다. 이는 경기침체를 웃도는 수준이다.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

### 미국 주요 체인 점포 폐쇄

(단위: 곳, 2017년 이후는 추정치)

※ 출처: 비즈니스인사이드



스를 비롯해 약 50개의 체인 업체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키스앤드 웨이키퍼드는 2018년 미국 내에서 문을 닫는 점포 수는 1만2000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개 주요 소매업체는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드러그스토어 체인 월그린과 갭, 짐보리 등 약 24개의 주요 유통업체가 올해 매장 3600곳 이상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올해 안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시어스와 본톤스토어, 비비스토어, 스타인마트 등을 꼽았다.

데보라 와인스위그 FGRT 애널리스트는 “많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물리적 점포를 폐쇄함으로써 온라인 판매로의 이동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포 폐쇄 흐름은 ‘앵커 테넌트’를 잃을 쇼핑몰의 위기로 이어진다. 앵커 테

넌트 쇼핑몰의 핵심 점포를 의미한다. 부동산업체 코스터는 미국 내 1300개 쇼핑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10곳이 앵커 테넌트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앵커 테넌트가 사라지면 유통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침체해 주변 상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쇼핑몰 업체들은 점포를 폐쇄하려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36개 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이먼 프로퍼티그룹은 지난해 스타벅스를 고소했다. 스타벅스가 차 전문 매장 티바나 체인 379개를 모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7개가 사이먼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해 있어서다. 이주혜 기자 winjh@

## 줌인아시아

### 신중국 모바일 브라우저 전쟁

## 알리바바 UC브라우저, 인도서 크롬 제쳤다

### 인도네시아서도 점유율 앞서

가벼운 용량, 콘텐츠 무기로

인터넷 보급 적은 신중국 공략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모바일 웹브라우저 ‘UC브라우저’가 아시아 신중국에서 구글 ‘크롬’의 아성을 깨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크롬은 지배적인 위치이지만 UC브라우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약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브라우저 전쟁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풍부한 아시아 시장의 신규 인터넷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WSJ는 강조했다.

구글에 따르면 크롬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10억 명이 넘는다. 이는 약 4억 3000만 명인 UC브라우저의 2배 이상이다. 스냅카운터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년간 크롬의 글로벌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점유율이 47%. UC브라우저는 16%를 각각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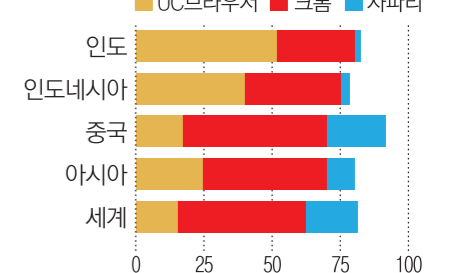
UC브라우저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에 그쳤다.

그러나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 아시아 시장에서는 UC브라우저의 존재감이 돋보였다. 인도 시장에서 UC브라우저는 점유율이 51%로, 30%에 그친 크롬을 눌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41%로, 32%의 크롬에 앞섰다.

중국 시장에서는 많은 스마트폰이 안

### 모바일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단위: %) ※출처: WSJ



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장착돼 있는 크롬이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신흥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UC브라우저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닐 샤프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스마트폰 용량 대부분은 12기가바이트(GB)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반면 미국은 32GB가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UC브라우저 앱 용량은 31메가바이트(MB)로, 크롬의 125MB보다 훨씬 가볍다.

전문가들은 UC브라우저가 크리켓과 축구 경기 실황 등 콘텐츠를 보여주는 포털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 아시아 사용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UC브라우저의 약진으로 알리바바는 아시아 시장에서 세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리서치업체 이마켓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는 지난해의 약 8억6000만 달러에서 2021년엔 22억 달러(약 2조3386억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인도 시장은 4억6000만 달러에서 17억300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정책발언대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



치매, 국가가 대비해야 할 사회문제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저는 보육·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보육전문가로 일한 30년의 현장 경험을 국회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순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 모든 자식의 마음처럼 쇠송하기만 합니다. 주변에 치매의 아픔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가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센터 등을 운영하며 관련 연구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치매 시대를 대비할 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공립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매 관련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광역, 기초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홍보를 넘어 조기 진단을 활성화하는 전진기지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공립 요양병원들은 치매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민간 병원에 치중돼 있던 간병과 치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열 분 중 한 분, 85세 이상은 열 분 중 네 분 정도가 치매환자라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입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너무나도 큼니다. 태산 같은 부모님의 약해진 모습에 가슴 아플 겨를도 없이, 간호와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간에 다투는 일이 예사입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간호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담은 현재 약 13조 원에서 2050년에는 106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GDP)의 약 3.8%가 치매 관리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치매 노인 1명을 돌볼 수 있는 생산인구는 2015년 57.0명에서 2060년엔 7.4명으로 감소한다니,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치매는 미래 세대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상

50세 이상 성인은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암이 아닌 치매를 꼽는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누구도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치매 사회를 대비하는 관련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未來는?

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는, 그동안 중도 혹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할 정당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통합 반대파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 중에 소극적인 반대파는 경우에 따라서 통합파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딜레마는 또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중 중진 이상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 통합 이후의 처신이 마땅치 않고, 통합에 반대하는 초·재선 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발

생하는 기존 지역 위원장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아, 국민의당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신당 창당이다.

하지만 신당을 만들어도, 이 신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정당보다 지지율이 반드시 높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다. 이런 종류의 신당은 자칫 지역주의에 기반 지역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당 창당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아마도 안철수 대표는 이런 상황을 보고,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도 이번 과정에서 잃는 것이 분명히 있다. 안 대표의 경우, 신선한 이미지를 무기로 새 정치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합 과정에서 그런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자신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호남 유권자들에

게 보여준다면 호남은 다시금 안 대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안 대표가 잘 버티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통합을 추진하면서 안 대표가 얻은 것도 있다. 바로 이번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추진력이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는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 문제 때문에 국민의당이 분당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합 반대파들이 또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통합 신당의 규모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통합 이후다. 그 이후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이다. 그런 진짜 예측할 수 없다.

알쏭달쏭

가능한, 가능한 한

새해가 시작될 때면 누구라도 새 희망을 갖는다. 열심히 노력하는 나에게 결코 불가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용기를 내고 정열을 불태운다. 희망은 이처럼 사람을 활기차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모든 게 다 가능할 것이라고 여기는 긍정적 에너지가 바로 희망이다.

이처럼 희망에 부풀수록 가능성을 잘해야 한다. 모든 게 다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

는 것은 좋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가능한 일과 가능하지 않은 일을 잘 가늠하여 실현이 가능한 일을 택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능한'이라는 말과 '가능한 한'이라는 말 사이의 차이부터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가능'은 '가능'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가

할'가, '능'할'이라고 혼동한다. 할 수 있는 일이 곧 '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 '한계 한(限)자가 한 글자 더 붙는 '가능한 한'이라는 말은 '가능한 한계 내에서'라는 뜻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일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방법, 즉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활용하여 일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가능한 한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 발휘하여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가능한 방법'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말하고, '가능한 한 노력'은 '주관적 의지와 선택의 표현인 것이다.'

새해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다음, 가능한 일을 택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가능한 일에 힘을 쏟는 것은 무모(無謀)이고, 가능한 일에 힘을 쏟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애플, 국내서도 '성능 조작' 아이폰 배터리 교체... '공짜인 줄 알았더니...'



애플이 '성능 조작 파문'을 일으킨 구형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작업을 2일 국내에서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지도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도 없이 진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애플 공인 AS업체의 휴무가 끝나는 이일부터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체를 인허가 비용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폰6 이상 사용자가 개별 AS업체를 방문하면 현재 교체비용인 10만 원에서 6만6000원 인하된 3만4000원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무상 교체가 아닌

교체비용 환원은 결국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는 구형 아이폰에 대한 배터리 교체 서비스 게시 시점도 명시되지 않아 "성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28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일명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대적 배터리 교체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애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2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를 신청했다.

네트즌은 애플의 구형 아이폰 배터리 교체 대응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아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네이버 아이디 'kmpw\*\*\*\*'는 "구형 아이폰 배터리 교체는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더니, 결국 배터리 교체하는 척하면서 또 돈 벌어 먹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myje\*\*\*\*'는 "애플코리아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배터리 교체를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건지 명확한 시점은 없고, 그야말로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아는 듯"이라고 토로했다. 아이디 'only\*\*\*\*'는 "소송도 소비자의 권리다. 애플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귀찮다 말고 꼭 걸길. 그런데 소송하려면 이번에 배터리 교체는 하지 않아야겠죠?"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아이타올(주)**

**라인 세면타올**  
이중 파일 조직으로 제작되어 터치감이 좋은 타올입니다.

**크로커다일 패턴 세면타올**  
두껍지 않아 데일리 타올로 적당하며 실용성이 뛰어난 타올입니다!

**데코 세면타올**  
특수한 중량감과 터치감으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www.itowe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ISO 9001 인증업체

정승호의 키워드

“저 편지들을 불태워라!”

統攝의 리더십이 내린 명령



언론인 전 코스카저널 논설주간

지도자라면, 국민 통합이 자신에게 주어질 가장 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저 편지들을 불태워라!”라는 조조(曹操)의 명령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이 명령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120장(章) 중 제25장 ‘관도대전(官渡大戰)’의 끝 무렵에 소개된다. 조조의 7만 병력과 원소(袁紹)의 70만 대군은 관도에서 맞붙었다. 당시 중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그 대대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싸움이었다. 결과는 조조의 승리. 1대 10의 절대적인 열세에서 원소를 패망케 한 조조는 원소의 막사에서 서신 한 다발을 발견한다. 자신의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한 편지다. 참모들은 그들을 모두 처단. 배신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고 주장하나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원소에게 겁을 먹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 번 마음

이 바뀌었다. 그들인들 오죽하라!”라며 편지를 몽땅 불태우라고 명령하곤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충언(忠言)이 귀에 쓰다며 부하의 목을 베고 감옥에 가둔 원소와는 달리, 참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부하에게도 몸을 낮춰 승리를 얻은 조조의 리더십은 배신자들의 편지를 불태울 때 절정이었다. 조조의 경청(傾聽)과 관용이 내부를 더욱 강고히 해 열 배나 강대했던 원소를 물리치고, 그의 후손이 위(魏)·촉(蜀)·오(吳) 등 삼국을 통일하는 밑바탕이 되었음을 누가 부인하겠나. 조조보다 약 400년 전에 태어난 로마의 장군 파비우스 막시무스도 관용과 포용으로 통합을 이뤘다.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로마의 여러 영웅 중 파비우스만큼 후세의 찬사를 오래도록 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이 자세히 전한 그의 행적은 며칠 전 연세대 정치학과 박명림 교수가 한 신문 칼럼에 잘 정리했다. 그 글을 다시 요약해 본다. (파비우스는 로마 시민이 자신을 비난

하고 강경파를 선택한 결과 한니발에게 대패했어도 자신을 비난한 사람과 강경파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인민들을 위로하며 결국은 로마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고취하기에 바빴다. 그는 술한 장병들을 잃은 채 도주해온 집정관 테렌티우스 바로도 비난·처벌하지 않고 “그는 로마 시민들과 함께 적을 물리치지



조조(왼쪽)와 파비우스.

위해 귀환했다”며 환대·위로했다. 자신에게 도전하여 끝내 지휘권을 나눠 가진 마누키우스에게는 “물리쳐야 할 적은 내가 아니라 한니발임을 잊지 마라. 동료와 다들 필요가 있더라도 언제나 로마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누키우스가 패배의 위기에 직면

하자, 파비우스는 “그는 나라를 사랑한 용감한 전사다. 그가 너무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차후에 따질 문제”라며 선두에 나서 구출하였다. 로마인 중 파비우스를 반대했다가 파비우스의 품에 안긴 마누키우스는 매우 많았다. 파비우스의 포용으로 하나 된 로마는 외적인 승리의 내적 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세해가 되었어도 마음이 무겁다. 길고 긴 적폐정산 때문일 것이다. 일찍 끝났더라면 이 피로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적폐정산에 쏟은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통합에 쏟아 넣었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찌푸린 얼굴, 어두운 마음보다는 미소 띤 얼굴, 밝은 마음이 여기저기서 새해를 함께 맞은 것을 서로서로 진심으로 축하했을 것이다.

이제는 편지를 불태워야 할 때다. 마누키우스들을 꺼안아야 할 때다. 상대의 면지를 탈탈 털러 들지 말고, 그들의 구족(九族)을 멸해야만 분을 풀 수 있다는 느낌도 주지 말아야 한다. 안만 보지 않고 밖을 봐야 한다. 아직 늦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이룰수록 좋다. 우리의 분열은 우리의 경쟁자와 적에게만 이로운 뿐이다.

전민정의 인사이드

산업2부 차장



다국적 IT공룡의 일그러진 영업행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도 우리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낸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가세도 세금이라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일그러진 영업 행태를 비판 우스갯소리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IT업계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들이 오히려 범법적인 의무와 각종 규제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세금 등 비용과 한국 정부의 제재 칼날에서 자유로운 해외 공룡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토종 기업들을 누르고 세를 불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네이버는 국내에서 2746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반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해외 IT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조차 모른다. 구글의 경우 구글플레이를 통한 앱 판매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제금액은 싱가포르 법인에서 계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500억 원의 광고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도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광고 매출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몰아주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 방식이다.

미국 정부의 망(網)중립성 원칙 폐기와 맞물려 국내 인터넷망 ‘무입승차’ 문제도 가시화됐다. 2016년 7월이던 743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폭증에도 인터넷망 사용 대가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관행화 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했다”며 버티는 구글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소환조사는 단 한 번뿐, 상황 파악 그 이상의 조사는 현재 지지부진하다. 망 사용 대가를 피하기 위해 국내 망 접속을 끊었다가 방통위 조사를 받게 된 페이스북도 KT의 요청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며 ‘책임 떠넘기기’로 버티는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속도 차별 기준이 분명치 않다 보니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IT 공룡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역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방통위의 제재를 앞두고 케빈 마틴 페이스북 통신 정책 담당 부사장이 이번 달 방한한다는 소식은 그나마 반갑기 그지 없다. 페이스북이 올해부터 30억 개 국가별 광고 매출을 해당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광고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통신사와 갈등 중인 망 비용 개선이나 세금 납부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금추징 압박을 피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지만, 구글과 애플 등 다른 다국적 IT 공룡들의 과세 정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부디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의 역차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는 물꼬가 되길 기대해 본다. puri21@

객석

박 승 신 제주항공 홍보팀 과장



젊은 끈대가 보는 사회초년생

얼마 전 친한 동생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정업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다. 취준생 생활 3년 만에 원하던 대기업에 합격해 술 한잔을 기울였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사직서라니, 의아한 결정이었다. 자기가 생각한 ‘직딩 라이프’가 아니었다고 한다. 불현듯 얼마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어떤 기사가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6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무려 28%나 나왔다고 한다. 취준생일 때의 그 간절했던 직장인 라이프는 온데간데없고,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이 환청으로 들려오고 동시에 부스스한 눈으로 거울을 보며 ‘거울 속의 저 판다는 대체 누구일까?’로 하루를 시작했던 내 초년생 때를 생각하니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조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도 않고, 중요한 업무들을 단독으로

맡기지도 않는다. TV에 나오는 슈퍼 셀러 리맨처럼 신입사원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은 극히 드물거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그 동생도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단순 업무의 지루함과 생각보다 낮은 가치의 업무에서 괴리감을 느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그들의 상황이 나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때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업무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만들어가도 될 텐데’라는 젊은 끈대(젊은)의 의아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새해가 밝고 3일째인 오늘 선배로서, 젊은으로서 되지도 않은 진소리를 해주고 싶다. 취준생일 때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기억하라고. 당년도 후배들을 보며 이런 같잖은 소리를 해 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라고.

기자수첩

이 신 철 정책사회부/camus16@



다주택자의 境地, 다주택자의 地境

경지(境地)와 지경(地境). 글자의 순서만 바뀌었지만, 뜻은 천지 차이다. ‘어떻게 저런 경지에’와 ‘어찌 저 지경에’ 사이에는 아득한 격차가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 차이가 좁혀지다 못해 뒤집힌 존재가 있으니 그들은 ‘다주택자’다. 건물주와 함께 부러움을 사는 존재에서 이제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됐다.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나름의 역할이 있다. 목돈 마련이 힘든 서민이 선 주택자가 공급한다. 정부가 주거복지로 드래프트에서 발표하곤 바에 따르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미등록 사적 임대주택은 516만 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등록 임대주택인 79만 가구를 포함하면 595만 가구. 이는 공공 및 법인의 공급분을 포함한 전체 임대주택(724만 가구의) 82% 수준이다. 국가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放棄)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구축한 경지다.

현재는 여분 주택을 팔지 않으면 정부에 팔이 쥐일 처지다. 올해부터 새로운 DIT(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 신규 대출을 막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새로 구매할 길은 사실상 막혔다. 집이야 어찌피 어찌 아니 더 못 사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양도세가 종과돼 보유 주택을 팔기도 어렵게 됐다. 다주택자 압박의 종지부가 될 수 있는 보유세 개편 방침도 정부가 공식화한 상황인지만 임대 등록을 할 것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 전까지 처분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다주택자 비틀기’로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을까. 다주택자가 오를 또 하나의 경지는 ‘버티기’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의 두 배 수준인 73.6%이다.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은 다주택자가 과연 수건을 던질까. 규제를 피해 매도 대신 증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정부는 다주택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야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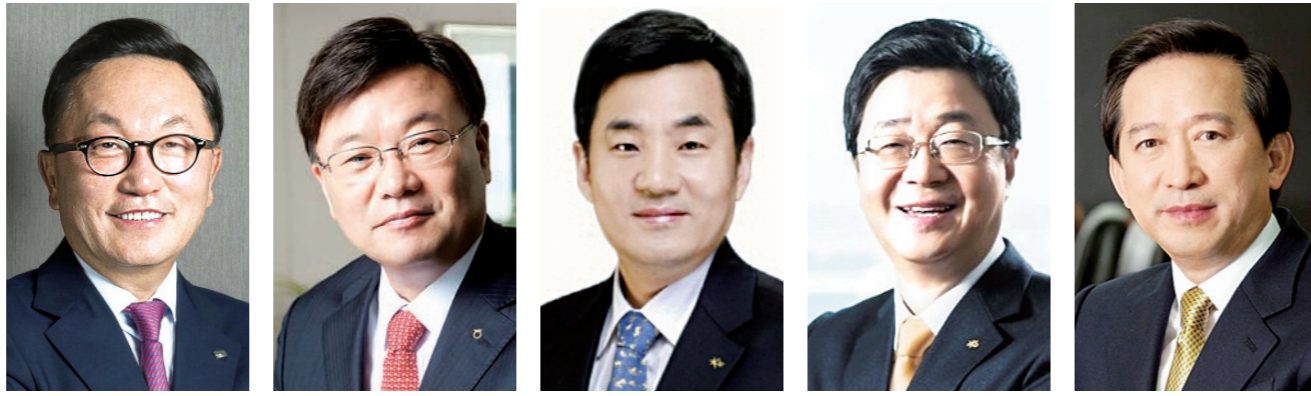
Table with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and various department phone numbers.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신한카드의 깊이가 다른 혁신 DEEP. Card image showing 'DEEP' branding and '신한카드의 깊이가 다른 혁신' slogan.

# “고객만족 최우선 삼고 글로벌 시장으로”

## 증권사 CEO 신년사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우량자산 공급 플랫폼 제공”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고객관리 획기적으로 강화”  
**윤경은·전병조 KB증권 사장**  
 “이머징 마켓 주요 거점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윤경은·전병조 KB증권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왼쪽부터).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고객 만족’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새해를 맞아 강조한 키워드다. 사실 ‘고객 만족과 글로벌 시장 확대’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다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쫓기는 CEO들의 신년사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지난해의 경우,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써 내려가면서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부진을 상당 부분 털어버렸지만, 아직 증권사 CEO들의 마음엔 불바람은 먼 듯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일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를 보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은행(IB

라고 해도 해외에 나가면 작은 금융회사에 불과하다”면서 “미래에셋의 글로벌화를 더욱 강화해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하고자 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고객을 위해 우량 자산을 공급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모든 판단 기준은 고객이며, 고객을 위해서라면 국내외 구분 없이 관련 자산을 서비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과 디지털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임직원에게 주문했다. 김 사장은 “늘어나 수명으로 고객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장기화

할 것”이라면서 “고객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윈윈(Win-Win)하는 모델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외나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요구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라면서 “글로벌 상품의 소싱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보유한 해외 거점을 활용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임에 성공한 윤경은, 전병조 KB증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언급했다. 지난해 베트남 마리아타임즈를 인수한 것처럼, 이머징 마켓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자

는 것이 올해 신년사의 골자다. 그들은 “단순한 네트워크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사 S&T, IB부문과의 협업 비즈니스를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설계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협력’과 ‘혁신’도 빠지지 않는 신년사 핵심 키워드였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우리가 가진 자원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면, 국내외 다른 금융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원식이 베스트투자증권 대표는 “혁신의 정답은 고객에게 있다. 진정으로 고객 편에서 서서 고객을 위해 고민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한국토요타, 타케무라 노부유키 새 사장 부임

한국토요타에 신입 사장이 부임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일 요시다 아키히사(吉田明久) 사장의 후임으로 ‘타케무라 노부유키(武村信之·사진)’ 신입 사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1967년생인 타케무라 노부유키 신입 대표이사 사장(50·사진)은 ‘아오야마(青山)학원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부를 전공했고 1990년 토요타 자동차에 입사, 북미 상품기획을 담당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중동·북아프리카부에서 마케팅과 렉서스 플래닝을 맡기도 했다. 신입 사장은 한국 첫 부임 소감에 대



해 “성숙한 자동차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요타와 렉서스가 한국 고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시다 아키히사 전 대표이사 사장은 4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일본 본사로 귀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푸르밀 신입 대표이사에 신동환 부사장 선임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신동환(49·사진) 부사장을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푸르밀은 2007년 롯데우유 분사 이후 처음으로 오너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신동환 대표이사는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차남이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이다. 1970년 12월생으로 1998년 롯데제과 기획실에 입사했으며 2008년 롯데우유 영남지역 담당 이사를 역임했다. 2016년 2월 푸르밀 부사장으로 취임해 2017년 기능성 발효유 ‘엔원(N-1)’ 출시에 공들였다. 신 대표이사는 2일 취임사에서 “지난 20년간 식품, 식음료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



해가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푸르밀은 2018년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유제품 전문기업인 만큼 품질 개발을 통한 고품질 제품으로 고객 만족과 신뢰를 충족시키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푸르밀은 1978년 롯데우유업으로 출발해 2007년 3월까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우유·우유였다가 2007년 4월 롯데그룹에서 분사했고 2009년에 사명을 푸르밀로 교체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설즈버거 NYT 새 발행인 “내 도전은 언론 가치 수호”

### 새해 첫날 38세에 발행인 취임 디지털 혁신 의지 다시 한번 강조



미국의 세계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30대 발행인 체제에 돌입했다. 38세의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사진)가 새해 첫날 NYT의 발행인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그는 1896년부터 120여 년간 이어져온 설즈버거 가문의 가족경영체제의 6번째 발행인이 됐다. 아버지인 아서 옥스 설즈버거 주니어는 NYT 회장 자리를 유지한다. 설즈버거는 2009년 NYT에 기자로 입사했다. 그는 2014년 디지털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전략을 담은 ‘NYT 혁신보고서’ 작성을 주도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6년 10월 부발행인으로 취임해 공식적인 후계자로 떠올랐다. 설즈버거는 1일(현지시간) NYT에 ‘새 발행인으로서의 노트’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려 디지털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설립자인 아돌프 옥스가 1896년 NYT를 인수한 이래 120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적이며 용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NYT는 흥미진진한 혁신과 성장의 시기를 맞이했다”며 “인터랙티브 그래픽과 팟캐스팅, 디지털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에 투자하고 탐사보도와 국제기사를, 심층기사에 더 많이 지출하면서 우리의 보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다. 그는 “내 앞에 놓인 도전은 NYT가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하도록 하면서도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신문기자로서 커리어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나는 NYT 디지털 진화의 챔피언이기도 했다. 최고의 전통을 보호하면서도 흥분과 낙관으로 미래를 바라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NYT가 편파적인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며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트위터 트윗을 통해 공정보도를 실행할 마지막 기회라며 설즈버거에게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망해가는 NYT에 새 발행인 AG 설즈버거가 왔다. 축하한다”며 “NYT가 정당과 종교,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한쪽에서 치우침없이 공정하게 보도하라는 아돌프 옥스 설립자의 비전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인사

- ◆기획재정부 ▽실정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이승철 ▽과장급 △국제조세제도과장 김경홍 △기업환경과장 이승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박노재 △정보보호지원팀장 이영철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 이동근 ▽본부장 △안해성 산업원천연구본부장 △박성현 공공기술연구본부장 △김현주 미래선도연구본부장 ▽부장·센터장·실장 △김승근 해양장비연구부 △최진우 수중로봇연구부장 직무대리 △김희진 융합기술연구센터장 △박철수 해양방위연구센터장 △정정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장 △강성길 국제협력실장
- ◆라이나생명 ▽전무 신규 선임 △투자부부장 정유식
- ◆DB저축은행 (부사장 승진) △신진승 영업1본부장
- ◆DB캐피탈 (상무 승진) △변준권 영업본부장
- ◆DB금융투자 ▽임원 승진 △WWM사업부장(부사장) 강석운 △프로덕트센터장(상무) 이병기 ▽보임 △양산지점장 김서원 △법인영업2팀장 태일중 △종합금융팀장 정동철 △재무파트장 김구 ▽전보 △대구정금융센터장 이상운 △천안

- 지점장 김창호
- ◆동양생명 ▽승진 △상무부 이문구 (GA영업본부장) ▽선임 △이사대우 이광수(다이렉트영업본부장)
- ◆KTB투자증권 (승진) ▽전무 △구조화금융센터 이승대 ▽상무 △전산실 김영호 ▽상무부 △PI팀 인준용 △채권금융팀 장혁수 △대체투자팀 유병수 △인사총무팀 곽환영 △감사실 한승환 ▽이사대우 △영업부 김종덕 △Credit Market팀 이동현 △법인영업2팀 류종열 △대체투자팀 정성민 △재무팀 김덕연 △기업분석팀 이해린 ▽부장 △영업부 윤성희 △자산운용팀 박승환 △IT운영팀 김홍규 △기금업2팀 손광수 △SF 사업팀 이주형 △기획팀 김윤주 ▽임원 △투자금융본부 홍영길
- ◆KTB자산운용 (승진) ▽상무부 △임재상 △권정훈
- ◆KTB네트워크 △전무 정도 ▽상무 △이승호 임동현 박신배 ▽상무부 △김재한
- ◆KTB PE ▽전무 최명록 ▽상무 △이성범 신승훈
- ◆케이프투자증권 ▽부사장 선임 △구조화금융2팀장 홍종철 △부동산금융팀장 김태훈 △법인금융팀장 송준훈 △채권금융팀장 유현
- ◆중근당 ▽중근당 △전무 이윤환 ▽상무 강종환 △이사 이상규, 문승기, 구태영, 유근호, 백인현 ▽경보제약 △전무

- 손회주 △이사 이준봉 ▽중근당바이오 △상무 최인석 △이사 김세진 ▽중근당 건강 △시장 김호곤 △전무 박성선 △이사 김영우
  - ◆신동아건설 (임원 선임) ▽상무 금융지원 박기훈
  - ◆신한신용정보 (승진)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이민호 △전략기획부 부장 문진호
- ## 부음
- ▲박판도씨 별세, 성권(KB증권 투자운용부 이사대우)씨 부친상 = 2일, 고령 대가야장례식장, 발인 4일 6시 30분, 054-955-1667
  - ▲김용하(양주소방서 소방교)·동하(문화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부상 = 2일, 경북포항의료원, 발인 4일 오전 9시, 054-245-0423
  - ▲정원식(한국은행 아태협력팀장)·원영(한화에너지 상무)·원경(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원 대표이사)씨 부친상, 안윤민(미국 플레그스타은행지점장)씨 장인상 =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40
  - ▲이은용씨 별세, 성결(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해미씨 부친상, 이강혁(비즈트리뷰 부국장)씨 장인상 = 2일, 인천 청기외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20분, 032-583-4444



## 켈컴 1조 과징금·시정명령 기여 직원들 ‘올해의 공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로’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켈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기여한 배현정(사진 왼쪽)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켈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특허 사용을 이유로 스마트폰 가격의 3~5%에 이르는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고, 경쟁 반도체 업체들에 자사 특허 사용을 제한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켈컴 측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현정 사무관(사진 왼쪽)과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켈컴을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스포츠 꿈나무에 5억 기부

대교그룹은 강영중(사진) 그룹 회장이 글로벌 리더 육성 및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봉암학원과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총 5억 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꿈나무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 수영 기대주 이호준 선수를 비롯해 전국소년체전 체조 3관왕 여서정 선수, 육상 단거리 유망주 최희진 선수 등 스포츠 유망주를 후원하고 있다. 강 회장은 “새해를 맞아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이훈규 보령메디앙스·박인호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대표 선임

보령제약그룹은 1일자로 자회사인 보령메디앙스 대표에 이훈규(사진 왼쪽) BR네트콤 대표,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대표에 박인호 보령제약 NEPHRO 사업본부장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1962년생인 이훈규 보령메디앙스 신입 대표는 한국의국어대 일본어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보령제약그룹에서는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BR네트콤 대표를 지냈다. 보령제약 일반의약품 판매와 온라인 사업을 이끌게 될 박인규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신입 대표도 1962년생



로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 약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5년 한국안센에서 일반의약품(OTC) 헤드를 맡았으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보령제약에서 NEPHRO 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과 고객 봉사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나르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 현대백화점그룹, 나눔활동으로 새해 시작

저소득 가구에 연탄 4500장 전달 현대백화점그룹의 봉사 사무식은 2011년을 시작으로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새해를 보람 있게 맞이하는 그룹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탄은행에 기부한 연탄만 총 147만 장에 달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연탄 나눔 봉사 사무식은 임직원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새해 각오도 다지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란 그룹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연탄은행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봉사 사무식은 2011년을 시작으로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새해를 보람 있게 맞이하는 그룹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탄은행에 기부한 연탄만 총 147만 장에 달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연탄 나눔 봉사 사무식은 임직원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새해 각오도 다지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란 그룹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Trust

SI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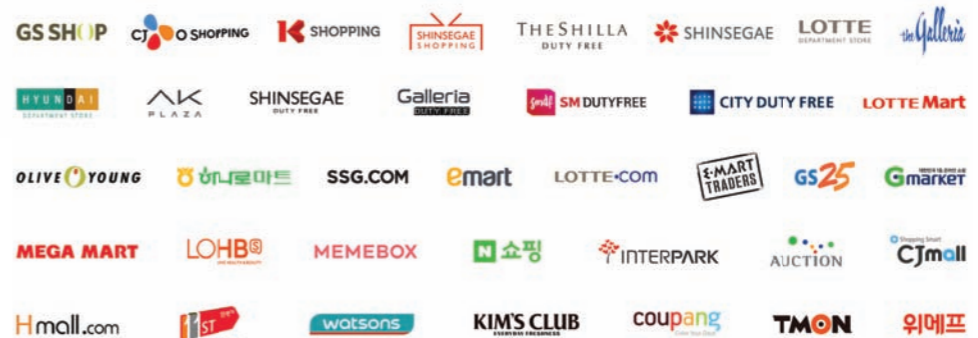


## 꼭꼭 감아라 TS로 감아라

### TS 제품



### TS샴푸를 만날 수 있는 곳



TS모델 황치열, 송지호, 차인표

SBS 아침연속극 '해피시스터즈' 메인협찬  
120부작 / 12월 4일(월) 첫방송!





# 'IFRS 17' 따른 불확실성 대두... "디지털 革新으로 선제대응"

(신회계제도)

## 신년사로 본 보험사 경영전략

보험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혁신·신시장 개척'을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금융산업과 타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혁신의 바람이 보험업계의 판도를 거세게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회계제도(IFRS 17) 도입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수장들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보험업계가 앞으로 맞닥뜨릴 변화를 지적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내세웠다.

생보사와 손보사 수장들은 모두 올해 업계의 화두로 '불확실성'을 제시했다. 2021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IFRS 17이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데 더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이 보험업계에도 점차 영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신년사에서 "보험사는 IFRS 17 도입 등 경영환경 변화로 경영체질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시장의 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또한 "2018년은 저성장·고령화 및 IFRS 2단계 도입,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등으로 경영환경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사업환경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보험사 수장들은 올해 각각의 경영전략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각사 수장들은 일제히 수익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올 변화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은 신년사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경영전략 회의'에서 올해 경영전략 목표의 하나로 "신계약 가치 목표 달성을 위해 고능률 조직을 늘리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영 현대해상 부회장도 신년사에서 "수익성이 높은 보험 중목의 매출 증대와 손해율 및 사업비의 지속 개선, 자산운용 수익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각 분야에 걸가치경영을 더욱 견고히 하고 혁신을 가속화해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신계약 가치 중심의 영업구조를 지속 강화하고 사차관리 혁신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 CEO 2018년 경영전략

				
신계약 가치 중심의 영업구조 자산운용 개선 해외 신시장 개척 조직문화 개선	능률, 생산성 증대 해외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 디지털 혁신	장기보험 인보험 경쟁력 제고 자동차보험 시장과 고변환에 선제적 대응 일반보험 국내외 시장 신성장 동력 발굴 자산운용경쟁력 차별화	수익 중심의 경영 강화 선도적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발 채널 생산성 제고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	고객중심 경영 가치중심 성장 디지털 혁신 생성문화 조성

## 경영환경 변화로 경영체질혁신 급선무 신시장 개척 등 통한 수익성 강화 필요 해외시장 진출·조직문화 개선 등 강조

신시장 개척도 보험사들의 주된 경영전략 중 하나다. 해외 보험시장 진출,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 다변화 전략을 강조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태국·중국합작사의 손익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은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의 상품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신 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해 자동차보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영 현대해상 부회장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선도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온라인, 전속설계사, GA 등 채널 생산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보험사 수장들의 큰 관심거리다. 이들은 이런 변화의 와중에 디지털 혁신을 앞세워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성장 동력인 글로벌·디지털 플랫폼을 확장하고 신기술·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헬스케어서비스, 인슈어테크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 경영기반

구축"을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로 손꼽았다.

조직문화 개선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운 수장들도 있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목표에 도전하는 성과중심 문화, 현장이 일할 맛 나고, 활력 넘치는 현장중시 문화, 회사 스태프와 현장 모두 연구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발전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희 KB손보 사장 또한 "KB손보 플랫폼에 있는 2만6000명이 함께 생성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규직원 중심의 제도, 사책, 비용 관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임기 첫해 맞은 금융권 협회 수장들

# "4차 산업혁명·소비자 신뢰 회복 주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유관협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과 IT 기술의 융·복합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김 회장은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업계는 전통적 의미의 '보험'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IT, 인공지능, 금융, 의료, 생명과학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와의 융합을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기회와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해 사이버 리스크, 의료사고, 생산불배상책임 등 새로운 보험시장 개척과 영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의 국내시장 저변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장들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강조했다. 김태영 회장은 "보다 엄격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공헌활동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장들은 올해 금융산업을 둘러싼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직면한 과제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부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금융산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신종백 새마을금고 회장·문철상 신협 회장

# "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 한목소리

## 사회공헌활동 적극 지원 등 주문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문철상 신협중앙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지지와 응원을 받는 국민의 새마을금고로 거듭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회복 속에서도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문제,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과 민간소비의 위축 등은 우리 새마을금고의 경영에 작·간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이러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그 일환으로 "현 정부의 정책 여건 다인 '포용적 금융'에 맞맞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새마을금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7차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그동안 고통을 분담해 왔던 조합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협운동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회장은 조합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조합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실명인증, 바이오 인증, 스마트 보안카드 등 핀테크를 활용한 예적금 가입, 간편송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대출상당과 신청서비스를 개발해 조합원들의 여신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여성상품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신용대출과 범우내대출 등 온라인 상품 개발과 함께 소액신용대출, 카드정보 연계 사업 자대출 등 오프라인 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문 회장은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불안전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순회감독역을 통한 지도 등을 통해 신협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앞으로도 청년 협동조합 육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등을 필두로 조합 및 지역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신협이 지역사회 사회공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THINKWARE

블랙박스는 역시 **아이나비**



## 강소라의 플래티넘 블랙박스

세계최초 전/후방 QHD

# 아이나비 퀴텀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세계최초 전후방 QHD 플래티넘 블랙박스

## 아이나비 퀴텀

**QHD**

세계 최초 전후방 QHD 화질  
광역한 영상 녹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

**UNV**

Ultra Night Vision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 확보

**BSD**

Blind Spot Detection  
후측방 시각 지대를  
감지하는 기술

**SID**

Super Intelligent Detection  
소리까지 잡아내는  
지능형 충격 감지 녹화

전후방 QHD 화질  
14화질 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화질 영상 녹화

저조도 환경에서 주체, 상사 녹화까지  
밝고 선명한 영상 기록

후측방 시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더욱 안전한 차선 변경 정보 제공

G센서의 움직임과 외부의 충격음을 감지한  
지능형 감지 녹화 기술 적용

# “원금보장·고수익 私募펀드”...불법 유사수신의 ‘달콤한 유혹’

## 이주의 금융꿀팁

# 가정주부 A 씨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A 씨는 은행 이자보다 고수익을 기대하며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맡겼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가 투자한 펀드는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역시 자산운용사가 운영하고 펀드 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모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충고다.

◇불법유사수신 구분 방법 =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 있다. 사모펀드도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된 증권사 포함)가 운용을 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한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 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

### 사모펀드 투자 시 체크 포인트 7가지

- ①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확인
- ②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있음
- ③ 전문투자자용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함
- ④ 투자전략 및 주된 투자대상 확인
- ⑤ 펀드매니저의 경력 및 과거 운용성과 확인
- ⑥ 환매 제한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
- ⑦ 성과보수 수취 여부 등 보수구조 확인



### 운용·판매사,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을 투자자보호 규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공격적 투자 성향... 큰 손실 입을 수도

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 투자자로 제한돼 있다.

개인인 일반 법인은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범상 1억 원(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 3억 원) 이상이다. 펀드별로 최소 투자

액이 더 많을 수 있다.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과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면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사항의 변경이 공시되지 않고 운용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보

### 펀드매니저 경력·과거 운용성과 참고 성과보수 수취 여부 등 보수구조 확인 환매가능 여부·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는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계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펀드매니저 성과·환매제한 여부도 따져봐야

= 사모펀드는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 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는 이러한 운용 인력의 경력과 과거의 운용 성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 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매니저의 퇴사, 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 성과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나 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뤄질 수 있다.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려면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 가능 여부, 환매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박규준 기자 abc84@

## 금융 이슈 따라잡기

### 금리 상승기 대출전략... “短期는 변동금리, 長期는 고정금리 유리”

예·적금 상품, 6개월~1년 만기 짧게 여윌돈 투자는 채권보다 주식시장에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전격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들쭉이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 연 2~3%대였던 주담대 금리가 연 5%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대세 상승기에는 금리 인상 효과를 보기 위해 예적금 상품은 만기를 짧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면 만기가 3~5년

이상인 대출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는 3~5년이 넘는 장기대출인 경우 금리인상 위험을 헤쳐갈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는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더 저렴하지만 금리 상승기엔 장기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3년 이내의 대출이라면 현재로서는 고정금리보다 저렴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1~2년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은 기준금리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신규 기준으로 가져갈지, 잔액 기준으로 가져갈지 따져봐야 한다. 신규 기준은 직전 월의 조달금리만을 반영하는 탓에 금리 인상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잔액 기준은 그동안 자금조달 비용을 누적해 산정되기 때문에 금리 변화가 천천히 반영된다. 이에 금리 상승기에 단기 대출을 받으려면 신규보다는 인상을 천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아놓은 차주라면 대출만기와 금리인상 속도, 중도상환수수료 등

을 감안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3~5년 이상으로 길고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면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금상품은 만기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단기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금리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의 1년 만기 신규예금금리는 연 1.9%로, 2015년 3월(2.01%)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예금금리는 연 2%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채권 투자는 금리상승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채권시장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신호인 만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자 중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길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가성비 높은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70개국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격 차이

	빗썸	비트피넥스	프리미엄	한국의 세계 거래량 점유율
비트코인	1872만 원	1만3088달러(1389만 원)	35.03%	4.31%
이더리움	118만3900원	833.70달러(884만 원)	33.81%	8.08%
이더리움클래식	4만2000원	29.651달러(3만1470원)	34.18%	67.99%
리플	2747원	1.9299달러(2048원)	34.25%	56.25%
라이트코인	33만3200원	234.75달러(24만9140원)	33.96%	6.47%
대시	149만3600원	1052.4달러(111만6900원)	33.83%	10.75%
모네로	48만9800원	343.10달러(36만4100원)	34.67%	21.23%
체트캐시	74만500원	526.81달러(55만9100원)	32.55%	36.57%
비트코인캐시	332만2500원	2,330.0달러(247만2800원)	34.36%	17.92%
퀀텀	7만2320원	50.750달러(5만3860원)	34.38%	87.71%

\* 출처: 빗썸, 비트피넥스 (1월 2일 오후 2시 기준)

# 김치프리미엄? 逆프리미엄 가능성에 대비하라

## 국내 가상화폐 수급 불균형 계속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30%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가 해외보다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뮤니티에선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하며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높은 프리미엄이 계속되는 이유는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비싸도 오를 것'... 투자자 기대감 한몫 = 2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홍콩 거래소 비트피넥스의 비트코인 가격은 각각 1만7600달러, 1만3518달러로 두 거래소 간 가격 차이는 약 30.19%(2일 오전 9시 20분 기준)다. 원화로 환산하면 빗썸은 약 1878만 원(환율 1067원), 비트피넥스는 1442만 원이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빗썸 105만4000원, 비트피넥스 81만4200원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29.63% 비쌌다. 라이트코인은 빗썸 31만3550원, 비트피넥스 22만6750원으로 프리미엄이 30.06%였다.

업계에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원인으로 투자자들의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 하락했음에도 국내에선 하락 후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심리가 우세할 때,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에 대해 둔감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해외가 크게 하락할 때 국내에선 오르는 현상까지도 종종 나타난다.

◇재정거래 일일 한계치 도달 = 만약 해외 거래소에서 계

한국, 홍콩보다 30% 비싸

하락장일 때도 '곧 반등' 심리가 떠받쳐

실시간 해외 거래 불가능

비트코인 전송에만 최대 일주일 걸려

해외서 싸게 사 국내서 차익실현 미미

높이 나는 새, 더 크게 추락

상승 기대감 꺾이면 추가 하락 불 보듯

기간별로 나눠서 '분할 매수·매도' 추천

정을 갖고 있으면서, 달러 계좌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투자자들은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를 재정거래(裁定去來·Arbitrage) 또는 차익거래라고 한다. 미국 거래소인 지닥스(GDAX)에서 1비트코인을 1만3597달러(1447만 원)에 사 국내 거래소에 전송한 후 1880만 원에 팔면 3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남아 있다. 전송 도중 급락했을 때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 전송에 3일~일주일 걸리는 등 전송 지연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은 더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진거래(공매수·공매도)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전면 중단케 했다.

일각에선 30%의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손실을 보지 않

기 때문에 해외계좌가 있는 투자자로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정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아 국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개인은 일일 가상화폐 전송량이나 은행 간 송금량이 한도가 있어 개개인이 재정거래로 프리미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기업 수준의 차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고프리미엄, 하락장 주의해야 = 프리미엄은 상승장에선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락장에선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락장에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시세가 더 낮아지는 이른바 '역프리미엄' 현상도 나온다. 국내에선 해외 하락분과 함께 프리미엄 부분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보다 더 큰 급등락을 맞을 수 있다.

급락장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애초에 세운 계획을 무시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트레이딩 전문가들은 급등락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매매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초기 시장 진입 투자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분할매수·매도'법이다.

총투자 금액을 한 번에 매매하지 말고 일정 비율로 나눠 투자해 등락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총자금이 100만 원일 경우 5만 원씩 20회나 10만 원씩 10회로 기간별로 나눠 살 경우 급등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 트레이딩 전문가는 "매매 전략을 세우고 대응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락장에서 분할 매매할 경우 평균 매매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시장 이모저모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래소 폐쇄 검토 등의 칼을 빼 들었다. 다만, 시장에서의 불만은 크다. 현직 한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투자자들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해프닝으로 끝났다.

## 美 정부 인사들 가상화폐 위험 경고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월리엄 갠비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은 미국 CNBC 투자 프로그램 '패스트머니'에 출연해 가상화폐의 급등락을 규제할 수 있는 중심 주체가 없어 투기와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완전한 투기이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장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클레이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금융시장이 가상화폐에 들쭉이 있고 있지만 일확천금에 대한 허황한 얘기가 오가고 꿈을 꾸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유가증권 시장보다 투자자 보호 수단은 거의 없고 규제 주체가 없어 사기나 조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특별대책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정회천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막아 교환가치를 떨어뜨렸으며 "국회 입법 등의 정상적 방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한 이런 규제는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신규 가상화폐 발급 중단) △감·경 합동 암호화폐 범죄 집중단속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광화문 가즈아!" 텅 빈 규제반대 집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그런데 현재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규제 방침을 밝힌 지난 연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반대 범국민행동본부' 명의로 12월 30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 규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투자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정작 광화문에는 예정된 시각에 집회 참여를 위해 나온 사람은 전혀 없었다. 경찰에 집회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광장 사용 신청은 행사 7일 전까지만 받기 때문에 집회가 예고된 시점에는 이미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중현 기자 jooh@

# 한 권으로 끝내자 비트코인 실전투자

비트코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잘 정리한 책

쉽고 재밌게 읽는 책

작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포켓북

전문기자가 쓴 책

언론사 금융 담당 기자들이 이제라도 누구든지 투자해볼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과 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현학적인 용어 해설이나 전문적인 지식 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비트코인 실전투자 한 권으로 끝내기 Q&A 가이드북.

지은이 이진우, 최재혁, 김우람 (이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신국판(128\*182) | 본문 136쪽 | 정가 10,000원  
ISBN 979-11-9511-373-6 13320 | 2017년 10월 12일 발행 분야 경제 경영 재테크

문의 02-799-6782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1 이투데이빌딩

## 한 권으로 끝내자 비트코인 실전투자

이진우·최재혁·김우람 지음

# 49

비트코인(Bitcoin) 가상화폐 길라잡이  
지금 투자해도 될까?  
이 책 하나로 나도 투자 입문

©today MEDIA

# 株式 '개장일 효과' 올해도 통할까

코스피 2일 0.49% 오른 2469.49 마감  
2001년 이후 지수 등락률 12차례 一致  
증권사, 글로벌 경기회복 등 상승 기대  
일각선 "개장 방향성 갖고 전망은 무리"

주식시장의 여러 통설 가운데 '개장일 효과'라는 것이 있다. 새해 첫날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 그해 주가도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올해 첫 거래일 코스피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한 해 전체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9% 오른 2469.49포인트에 거래를 마치며 올해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전 사례를 보면 새해 개장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 연간 주가도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17년까지 개장일 지수 등락률과 연간 등락률 방향성은 총 17번 가운데 12번이 일치했다. 약 70%의 확률로 '개장일 효과'가 적용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개장일 코스피지수가 각각 3.24%, 1.21% 오른 2001년과 2003년에는 연말 지수도 전년 증가 대비 각각 37.47%, 29.19% 상승했다. 또 2004년 코스피지수는 첫 거래일

연도별 코스피지수 '개장일 효과'

연도	개장일 상승률	연간 상승률
2018년	0.49%	-
2017년	-0.01%	21.76%
2016년	-2.17%	3.32%
2015년	0.57%	2.39%
2014년	-2.20%	-4.76%
2013년	1.71%	0.72%
2012년	0.03%	9.38%
2011년	0.93%	-10.98%
2010년	0.79%	21.88%
2009년	2.93%	49.65%
2008년	-2.30%	-40.73%
2007년	0.06%	32.25%
2006년	0.72%	3.99%
2005년	-0.25%	53.96%
2004년	1.30%	10.51%
2003년	1.21%	29.19%
2002년	4.50%	-9.54%
2001년	3.24%	37.47%

에 1.30% 올랐고 연간 기준으로 10.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역시 개장일에 각각 0.72%, 0.06% 올랐고, 그해 말에 3.99%, 32.25% 오름세로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변동성이 컸던 2008년과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첫 거래일 2.30% 하락했던 2008년 주가지수는 연말에 전년 대비 40.73% 급락했다. 2009년에는 첫날 2.93% 상승한 뒤 연간 49.65%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됐다.

대개의 통설이 그렇듯이 개장일 효과 역시 딱 떨어지는 설명을 붙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첫날 거래에 그해 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증권사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기업 이익 전망치 상승 등을 근거로 코스피지수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통설을 과신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직전 2년간은 개장일과 한 해의 주가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첫 거래일 2.17% 하락했던 2016년 지수는 3.32% 상승했고, 첫날 0.01% 떨어졌던 2017년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21.76% 올랐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8년에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연초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지수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상승 탄력이 둔화할 수도 있다"면서 "개장일 방향성만 갖고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 CJ CGV

### 상하이에 100호점... 중국 年매출 3200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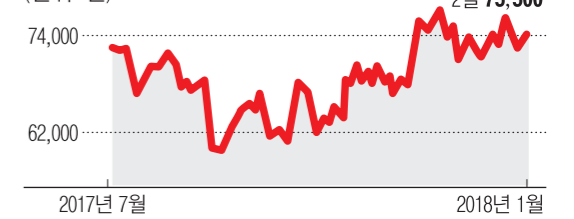
베이징 등 48개 도시 793개 스크린 갖춰  
현지 파트너사 통해 진출... 사드 영향 無

CJ CGV가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에 100호점을 개관했다. 2006년 중국 1호점을 오픈한 지 11년 만에 100개의 극장을 구축한 것이다. CJ CGV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48개 도시에 총 100개 극장, 793개 스크린을 갖췄다. 회사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해외 확장 정책의 성과와 중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물었다.

-중국 100호점 개관의 의미를 말해 달라  
"중국 300개의 멀티플렉스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CJ CGV는 지난해 말 중국 내 박스오피스 기준 7위 극장 사업자라 발돋움했다. 2012년 말 22위에서 15계단 상승한 것이다. 시장점유율 역시 2014년 말 2%에서 3%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말 해외 극장 수가 중국에서만 급격히 늘었다. 개관 수가 많아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CGV 극장에 대한 현지 수요가 늘어난 것인가  
"타키와 배트남 시장 진출은 기존 체인점을 인수하는 형태였지만, 중국은 하나씩 늘려가는 그린필드(Green field) 방식이다. 중국은 지금도 영화 관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CGV는 일선 도시가 아닌 이선, 삼선 도시로의 진출 전략을 취했다. 중국 극장 사업자들이 일선 도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

CJ CGV 주가 추이  
(단위: 원)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적자 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2016년 63개 극장에서 매출 2800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3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드 영향은 없었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출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는 인식 자체가 크지 않았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토토의 작업실' 프로그램 등 현지 친화적인 전략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점유율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극장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판단한다. 예전에는 극장을 많이 늘려 관객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지면서 사업 모델에 변화를 주려 한다. 극장 기능에 다른 요소를 결합해 다양한 놀거리를 만들겠다. 해외 시장에서는 성장이 유효한 도시 국가들과 인수·합병(M&A) 대상을 찾아 계속해서 사업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최두선 기자 sun@**

# SK증권 주파수

## 5년 연속 1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5년 연속 1위  
모바일은 역시 SK증권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스마트폰 MTS 부문 1위, 2017.04.20

고객센터 1599-8245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면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으며,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원천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1 K-CSBI  
Korea Customer  
Surprise Brand Index

주파수

제17-01958호  
2017.01.01~2018.01.01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

## 規制 비웃듯 가상화폐 관련株 줄줄이 급등

우리기술투자 등 테마주 일제히 오름세  
전문가 "체계적 흐름... 바꾸기 어려워"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주가 새해 첫 거래일 줄줄이 상승세로 마감했다.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급락한 뒤 1거래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는 29.96%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한 대표적 가상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비엔트(옛 세븐스타웍스)와 SBI인베스트는 각각 19.79%, 14.42% 주가가 상승했다.

이 밖에도 스티디털옵틱(9.83%) △옵티널(9.59%) △포스팅크(9.40%) △씨티엘(6.63%) △제이씨엔시스템(6.02%) △한일진공(4.59%) 등 이른바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들 종목은 모두 지난달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 발표에 급락했지만, 곧바로 큰 폭의 반등에 성공한 것. 과열된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았던 정부로

서는 다소 머쓱한 상황이다. 이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것은 직전의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규제가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고 본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결국 테마주의 가격은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전 세계적 가격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날 한 증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익에 대한 구체적 추정치를 제시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평균 수수료 수익을 각각 36억 원, 26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약 30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빗썸의 1개월 거래대금은 5월 5조 2000억 원을 넘어 11월에는 10배 증가한 56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달 1일 현재 하루 거래대금은 빗썸 2조 5000억 원, 업비트 약 7조 원으로 집계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강원랜드, 잇따른 제재에... 株價 7.9% '뚝'

문화부, 최근 5년간 매출총량 규정 위반  
운영 테이블 수·영업시간 축소로 재허가  
영업의 年 300억~400억 원 감소 불가피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재기로 결정함에 따라, 강원랜드의 주가가 새해 첫날부터 추락했다.

2일 강원랜드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50원(7.90%) 하락한 3만20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문화부는 지난달 28일 카지노 영업시간을 일 20시간에서 일 18시간으로, 일반 테이블 기구 수를 180대에서 160대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강원랜드의 카지노업 재허가를 승인했다. 기구 수 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영업시간 조정은 강원랜드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문화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매출 총량 규정을 위반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 경마 등 7개 사행산업에 매출 총량을 정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밝힌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 총량 초과 분은 2015년 1659억 원, 2016년 186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규모는 2016년보다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현재 매출 총량 규정은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화부 관계자는 "2014년 말 재허가 때도 매출 총량 준수를 조건에 명시했으나, 지난 3년간 강원랜드는 여전히 기준을 넘겼다"며 "이번 기구 수 및 영업시간 조정은 이에 대한 영업제한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증권 전문가들은 영업시간 축소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기구 수 축소는 기존 가동률이 50~80%에 머물러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지노 영업시간 조정 적용 시점부터 카지노 매출이 10%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매출 총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 연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 총량 위반 시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및 영업이익의 50%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카지노 규제가 강화되면 강원랜드의 중장기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다.

강원랜드 측은 "향후 매출 총량을 준수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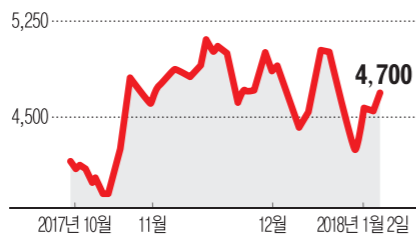
# 트루윈, 자율주행·드론용 센서 키운다

### 토지 처분·유증 등 97억 확보 IR센서 1분기 내 상용화 계획 일부 자금으로 재무구조 개선

트루윈이 97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자율주행 및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에 사용되는 센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트루윈은 지난달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소재의 토지 및 구축물을 성신테크윈과 이에스글로벌에 양도하고 판매 대금 88억 원을 확보했다. 자산총액대비 11.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트루윈 추가 추이 (단위: 원)



트루윈은 자동차용 변위 센서 생산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됐다. 페달 및 브레이크 등의 센서를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공급한다. 국내 유일 IR센서 개발업체이기도 하다.

죽동 소재 공장은 트루윈이 과거 자동차 변위센서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이 있던 곳으로 1만6095㎡ 규모다. 이 회사는 2015년 8월 본점 소재지를 유성구 문

지동으로 옮기면서 죽동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최대주주인 남용현 대표 및 김영이엔지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해 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자금 마련은 트루윈이 IR센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재무개선 효과를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사는 최근 IR센서의 3단계 공정을 마치고, 최종 마무리 작업에 있다. IR센서는 자율주행차 및 드론, 사물인터넷(IoT)에 쓰이는 제품으로 트루윈은 1분기 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IR센서가 상용화될 경우 국내 유일 제조회사가 된다. 국내 시장은 외국기업 2~3곳이 과점인 상태로, 트루윈은 가격을 낮춰 제품을 출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장 잠재력도 높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관련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개선 효과도 노린다. 트루윈의 부채 비율은 2014년 68%에서 2015년 129%, 지난해 269%로 좋지 못하다. 실적 역시 2014년 30억 영업익은 2015년 31억 원 적자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14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마련된 자금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쓰는 한편, 열 영상 센서 및 카메라 관련 양산설비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삼성 전면 듀얼 카메라폰 '갤럭시A' 캠퍼스, 카메라모듈 메인벤더로

### 고화소·고기능 개발역량 인정 정확도 높여 양산 수율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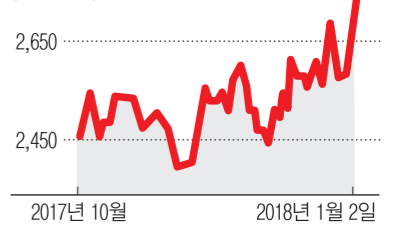
갤럭시A 삼성전자 최초의 전면 듀얼 카메라 탑재 스마트폰인 갤럭시A의 전면 카메라모듈 메인 벤더로 선정됐다.

3일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삼성전자의 중저가 모델부터 플래그십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에 카메라모듈을 공급해온 이력과 다수의 선도개발 공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고화소·고기능 모델 개발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작용했다"며 메인 벤더사로 선정된 배경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 전면 듀얼 카메라모듈 생산을 위해 준비를 갖췄다. 조기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존 모듈 공정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양산 수율을 조기 안정화했으며, 전후공정에 추가 설비를 확충해 내년 1월까지 월 최대 생산능력(CAPA) 150만 개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2개 카메라의 불량 여부를 판정하고 개체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듀얼카메라 전용 설비를 도입했다.

박영태 캠퍼스 대표는 "갤럭시A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판매 비중이 높고, 글로벌 듀얼카메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매출 증대를 위한 초석을

캠퍼스 추가 추이 (단위: 원)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A 전면 듀얼 카메라 모듈 사양은 800만 화소와 1600만 화소로 전면 광각 조절이 가능해 셀카용으로도 여러 인원 또는 넓은 배경을 촬영할 수 있다. 기존 카메라인 1600만 화소 카메라에 노이즈에 강한 이미지 센서를 적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양질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셀피 문화 확대에 따라 전면 카메라의 기능이 중요해진 만큼 라이브(Live) 보게 기능도 지원한다. Live 보게는 촬영 전 화면부터 피사체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배경은 흐릿하게 보이는 기능이다.

한편, 캠퍼스는 1993년 설립, 2003년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사업에 진출하여 연간 1억 개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장·IT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전자자동차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암니스, 100억 규모 플러스 CB 취득... 바이오시밀러 본격 투자

### 신공장 건설·유럽 진출 추진... 사명 '플러스바이오팜'으로 변경

암니스가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플러스의 전환사채(CB)를 취득하며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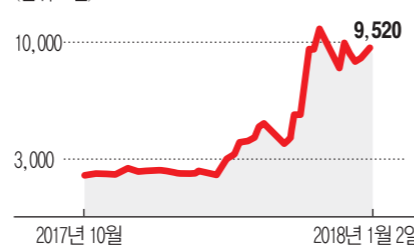
암니스는 신규 사업투자 목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플러스 전환사채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플러스는 조달한 자금을 경기도 화성 신공장의 조속한 건설 및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플러스는 관계사이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암니스를 통해 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조달 자금을 바탕으로 올해 7월 신공장이 완공되면 인슐린과 성장호르몬 등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의 승인 및 판매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암니스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7월 예정된 신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국내 공장 완공을 서두르고 유럽 시장

암니스 추가 추이 (단위: 원)



로 제품을 공급할 터키 현지 공장 건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러스와의 동행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신규 경영진과 함께 글로벌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암니스는 지난해 12월 플러스홀딩스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플러스바이오조항1호 등을 대상으로 4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또한 암니스는 26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플러스바이오팜'으로 변경하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들로 신규 경영진을 추가 선임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시각특수효과)

# VFX 전문 '텍스터', 中 완다파크에 65억 규모 콘텐츠 공급

시각특수효과(VFX)·콘텐츠 전문기업 텍스터스튜디오가 중국 부동산 그룹인 완다그룹의 완다파크에 609만3710달러(65억 원) 규모의 콘텐츠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텍스터가 우시(无锡) 지역의 완다파크 '다이내믹 시어터(Dynamic Theater)'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급 콘텐츠는 명나라 시절 환관 정화가 수백 척의 선단을 이끌고 출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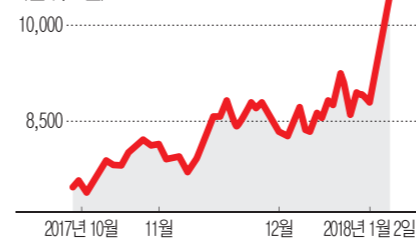
동남아, 인도, 중동을 거쳐 동아프리카까지 7차례의 항해를 한 '정화의 대원정'을 모티브로 한다. 배 모형 기구에 탑승한 관객은 험난한 바다에서 직접 항해하는 것처럼 해적, 바다 괴물 등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텍스터는 이미 지난해 8월에 완다 광저우 테마파크에 55억 원 규모의 체험형 대형 어트랙션 콘텐츠인 '플라이 시어터(Flying Theater)'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텍스터 관계자는 "텍스터가 보여준 콘텐츠 제작력을 통해 완다 측과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었고, 이에 우시지역까지 그 협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해빙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 미뤄져 왔던 수주 논의들이 재개되며 '스틸타운', '몬스터스' 등 지난해 12월에만 총 약 172억 원에 이르는 성과

텍스터 추가 추이 (단위: 원)



를 낼 수 있었다"며 "설립 이후 마침내 국내 유일의 콘텐츠 원스톱 제작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우림 기자 hura@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1월 3일, 08:00, KST)

연월	종가 (KRW)	거래량 (백만 주)
2017년 8월	4,339,742	338,824
2017년 9월	6,060,806	329,387
2017년 10월	8,795,833	401,323
2017년 11월	18,513,581	782,405
2017년 12월	20,125,000	1,162,000
2018년 1월 3일	20,125,000	1,162,000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3,486,000원	220,000원 (6.7%▲)	모넨로	493,100원	21,400원 (4.5%▲)
리플	2,930원	224원 (8.3%▲)	비트코인골드	323,700원	10,000원 (3.2%▲)
라이트코인	340,450원	26,350원 (8.4%▲)	이더리움 클래식	43,120원	1,410원 (3.4%▲)
대시	1,611,100원	191,400원 (13.5%▲)	퀀텀	73,260원	430원 (0.6%▲)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시니어 품격을 위한 문화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품격 매거진  
**BRAVO My Life**  
01 JANUARY 2018

주요기사: 월간 57지 키워드  
인생 문우는 매콤달콤 닭볶음탕

COVERSTORY 58을 위한 노래에는 숨표가 있다

PART1. 고무신 신고 달렸던 개미들에게 축배를  
PART2. 58개미 "그뻘 그랬지" - 먹고살 만해졌을 때 우리는 붓집을 뒀다  
PART3. 58개미 인생 5가지 이슈 87지 키워드  
PART4. 우리 때는 말이야... - 58년생 그들의 청춘사업  
PART5. 철옹성 같은 개미 모임에는 '도래'의 운명적 집착이 있다  
PART6. 우리, 환갑상은 꼭 박사  
PART7. 58 감성 - 58'의 일그리던 영웅들  
PART8. 청바지와 기타 - 다시 돌아온 戊戌年!

제2직업  
새해 주목해야 할 제2직업 키워드 5가지  
올해 주목해야 할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은퇴 세대의 폭발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자 인력시장으로 몰리면서 평생 겪었던 경쟁 속으로 다시 뛰어들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니어에게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새롭게 떠오른 무술년 새해 우리는 새로운 직업을 위해 어떤 분야를 주목해야 할까.

브라보 산책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서  
자작나무는 예로부터 숲보다 많은 나무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대도 왜 인기 있는지 묻는다면 수많은 숲보다 자작나무의 매력은 역시 외형이 아닐까. 흰옷을 차려입고 굽힘 없이 똑 뻗은 모습은 마치 고고한 선비를 연상시킨다. 흰 눈이라도 자작나무 숲에 내리면 동화적인 풍경이 압도적이다. 자작나무 숲 여행은 겨울에 하라고 추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COVERSTORY 58을 위한 노래에는 숨표가 있다

하나의 소망이 인생의 전부처럼... 비빔밥을 '올라' 시니어로 돌아온 배우 박인환

붉은 산수로 금기를 깨다 세계 화단이 주목하는 작가, 이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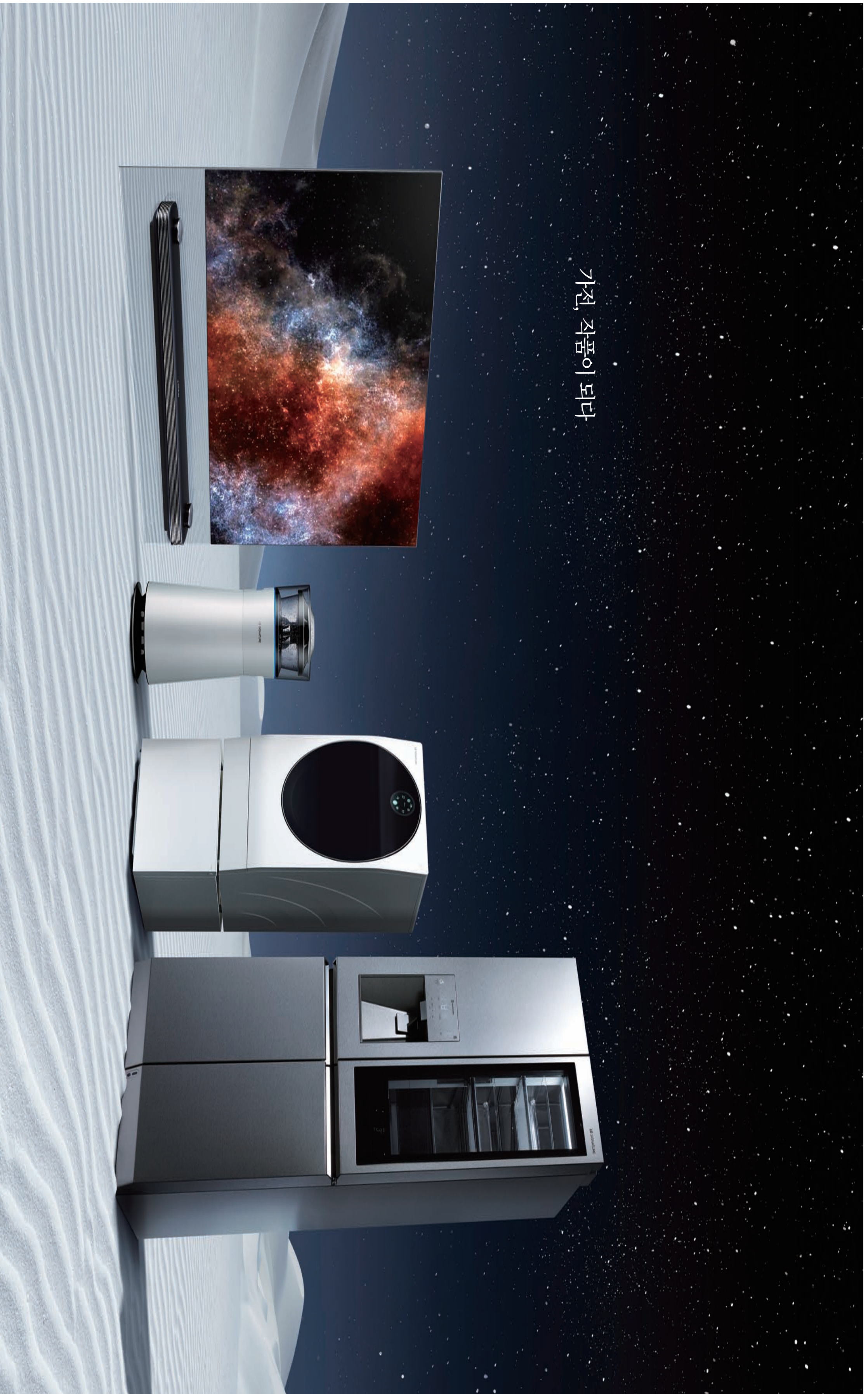
예술인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한 멈추지 않는 여정 세월을 노래하는 가격 최병호

입맛 돋우는 매콤달콤 닭볶음탕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냄비에 넣고 감자, 양파, 당근 등을 양념장과 버무리 자반하게 끓여 먹는 닭볶음탕. 졸이면 졸일수록 맛있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 잘 발라낸 닭고기를 국물에 촉촉하게 적신 다음 입으로 가져가면 밥 한 공기 는 거든다. 종로 골목에서 닭볶음탕으로 5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계림'을 소개한다.

스포츠 스타  
'쇼나기 편지'의 대명사 유명우  
1980년대 복싱은 한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인기 스포츠였다. 복싱 경기가 있는 날이면 팬들은 TV가 있는 다방이나 민화방에 삼삼오오 모여 응원했고 한국 선수기 우승하는 날이면 다방 주인이 무료로 커피를 돌리는 소소한 이벤트(?)도 열렸다. 1980년대를 풍미한 복싱 영웅 유명우를 그의 체육관에서 만났다.

동년가지의 페이지  
박종섭·송운호·이경숙·이현숙·장영희 벗에 대하여...

부치지 못한 편지  
윤정모 소설가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가전, 직품이 되다

초 프리미엄 가전, 그 위대한 여정 **LG SIGNATURE**